

아름다운 사람 백범을 말하다

백범 회보

2021 | 제64호 |

목차

조명(照明), 비추어 주목해 보는 백범의 사상

- 04 **여는 글**
_정양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 06 **김구 선생 서거72주기 현장스케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유지를 잇겠습니다!
- 12 **백범의 리더십**
‘경찰’ 백범을 아시나요? _박성순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20 **백범의 발자취**
우리는 왜 김구의 길을 따르는가 _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 28 **세계의 기념관**
인도의 위대한 영혼을 찾아, 사바르마티 아슈람으로! _채지형 여행작가
- 36 **백범의 후예들**
조국을 위해 돈보다 양심을 선택한 백범의 후예들 _정덕현 문화평론가

숙명(宿命), 거부할 수 없는 백범의 삶

공명(共鳴), 세상에 울림을 전하는 백범의 가르침

THE ASSOCIATION OF COMMEMORATIVE SERVICES FOR PATRIOT KIM KOO

- 46 **뜻을 잇다**
항일변호의 선봉장들 ‘김병로·허헌·이인’ _전병무 강릉원주대학교 연구교수
- 54 **사람과 사람**
춤추고 랩 하는 ‘현대판 백범’을 만나다! _장우성 연출가
- 58 **유목의 의미**
김구 선생의 유목, 그 깊은 울림을 전하다! _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제공
- 64 **백년지대계**
연택트 시대, PBL 콘텐츠로 온라인 수업의 대안을 만들다
_정준환 재미교육연구소 소장
- 72 **백범의 서가**
명성황후 시해범은 과연 누구인가? _표정훈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 78 **거룩한 여정**
백범김구선생임살진상 조사보고서
- 83 **이 한 장의 사진**
- 84 **다시 읽는 『백범일지』**
- 86 **협화기념관·재단 주요소식**



20



28



36



46



54



64



72

제64호

발행일 2021년 7월 22일 통권 64호 발행인 정양모

발행처 백범김구기념관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제)김구재단 04311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기획·편집·제작 도서출판 차고 02-6485-2580 ISSN : 2733-5720

※본지에 실린 집필자의 글은 우리 관 및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ww.kimkoomuseum.org

새로운 먼동은 반드시 터울 것입니다!



글 정양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김구 선생의 멸사봉공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

안녕하십니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정양모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가장 먼저 기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천(炎天)의 계절에 들어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염 확산 규모가 다시 커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기념사업협회도 작금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구 선생 71주기와 72주기 추모식을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한 참배행사로 치러야 했습니다.

비록 규모가 축소되고 형식도 달라졌지만, 김구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만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상황에서 김구 선생의 용기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실천이 더욱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시금석”

1946년 11월 1일 김구 선생은 재난민 원호(援護)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당시엔 입법의원 선거 문제로 정치권이 들끓었지만 민생 여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식량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전재민(戰災民)들이 많았습니다. 해방 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국내로 유입된 인구를 전재 동포 또는 전재민이라 했는데 그 숫자가 200만에 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재난민 중에도 약간의 자산가가 있는 듯하지만, 절대다수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세인(世人)은 언필칭 애국을 위하여 독립운동도 하고 최근에는 입법의원 경선에도 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눈앞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형편에 빠져 있는 절대다수의 동포가 죽은 뒤에 독립운동은 누구를 위하여 하며, 입법은 누구를 위하여 하겠는가 생각하면 모순이 너무도 크다. 그러므로 빈한한 동포를 구제하는 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되며, 독립운

동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김구 선생은 우리 시대 정치와 정치인들의 귀감

당시 김구 선생은 입법의원 선거를 거부하면서 추곡 수매와 쌀값 안정, 빈민 구제 등 민생 문제에 주력했습니다. 선생은 형편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돌보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보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17년 황해도 신천군 동산평(東山坪) 농장의 농감이 되어 농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당시 경험인 선생의 민생(民生) 우선주의 철학의 밑거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나 물으면, “백범 김구 선생”이라 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분투가 귀감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오늘날 정치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생이 말씀하신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시금석”, 즉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 돌보는 자세

와 실천이야말로, 우리 시대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김구 선생이 귀감이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식민지배의 어둠에서 광복의 새벽이 열렸듯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라는 현실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삶의 현장 구석구석까지 국가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생(民生)은 국민들의 생계, 살림살이를 뜻할 때가 많지만 글자 그대로 국민의 생명, 국민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신 국가는 ‘민생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이 바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먼동은 반드시 터울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식민지배의 어둠에서 광복의 새벽이 열렸듯이 말입니다. 🌅



1 문재인 대통령 등 묘소 앞에는 각계 주요 인사의 화환이 줄을 이었다



2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정양모 회장이 헌화를 하고 있다 3 묵념을 하고 있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임원들 4 백범 김구 선생의 친손녀 김미 씨와 손녀 사위인 빙그레 김호연 회장 등 유족들이 묘소를 찾았다



백범 김구 선생 제72주기 추모 행사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유지를 잇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

“백범 김구 선생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6월 26일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앞에서 ‘제72주기 추모행사’를 가졌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는 매

년 애국지사과 독립운동가 후손 및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 추모식을 거행해 왔지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묘소참배행사로 대신하였다.

묘소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황기철 국가보훈처 처

장을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의 화환이 줄을 이었다.

추모 행사가 시작되자 유족과 협회 임원·외부 인사·일반 시민들이 백범 김구 선생의 독립 의지와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경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과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함께 묘소를 찾아 고인의 유지를 되새겼다. 조경호 비서관은 헌화 후 방명록에 ‘봉정만리(鵬程萬里, 만 리의 먼 길을 날아간다) 백범 선생님의 꿈을 현실로!’라는 글을 남겼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유족과 인사를 나누며 추모의 마음을 나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경종이 되라는 선생님의 당부를 이어받아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새겼다.

김구 선생의 뜻 가슴에 새긴 정당 대표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승수·조명희·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준석 당대표는 ‘문화의 창달을 새로운 국가의 길로 설정하셨던 고인의 뜻을 미래세대가 실현해 보답



5 조경호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호 행정관이 함께 묘소를 찾아 김구 선생의 유지를 되새겼다 6 김창룡 경찰청장이 묘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7 묘소를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묵념하고 있다

하겠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고 윤주경 의원은 방명록에 ‘백범선생님의 민족의 하나 된 힘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준석 당대표 일행은 참배를 마친 뒤 백범김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로비의 백범 좌상 앞에서 묵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념관 1~2층에 걸쳐 마련된 전시를 관람하며,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과 사상, 업적을 둘러보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묘소를 찾았다. 송영길 당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서 “분단의 벽을 깨고 쓰러질 각

오로 선생님의 뜻을 이어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민족의 지도자를 향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

주말 이른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김구 선생의 묘소를 방문해 뜻을 함께 하는 등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추모를 마친 박수형 씨는 “추모식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묘소에 온 것은 처음인데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인께 가슴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참배 후에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백범 김구 선생의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려 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8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윤주경·김승수·조명희·윤창현 의원이 참배했다 9,10 묵념과 헌화를 하기 위해 김구 선생 묘소를 찾은 일반인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초등학생들과 참배에 나선 서울 시내 한 체험학습 교사는 “아이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의 업적을 가르치면서 현장을 찾아 생생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때마다 추모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이들을 인솔해 왔습니다. 주말 오전인데도 아이들이 늦지 않고 빠짐없이 참석해줘서 기특하네요. 추모식에 참여한 경험이 의미 깊은 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생님과 함께 묘소를 찾은 초등학생들은 묵념하며 김구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뿐만 아니라, 효창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들도 묘소를 방문했다. 두 손을 모은 채 한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조심스레 올리며 정

성을 다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 신발을 벗은 채 절을 하는 모습에서도 경건한 마음이 느껴졌다. 몇몇 시민들은 되돌아가기 전 김구 선생의 묘소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는 등 오래도록 선생을 기억하기 위한 다채로운 장면이 포착됐다.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헌화와 분향을 하는 묘소 참배 형식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선생의 웅숭깊은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12 **백범의 리더십**
'경찰' 백범을 아시나요?
박성순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20 **백범의 발자취**
우리는 왜 김구의 길을 따르는가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28 **세계의 기념관**
인도의 위대한 영혼을 찾아, 사바르마티 아쉬람으로!
채지형 여행작가

36 **백범의 후예들**
조국을 위해 돈보다 양심을 선택한 백범의 후예들
정덕현 문화평론가

조명(照明), 비추어 주목해 보는 ‘백범의 사상’



‘경찰’ 백범을 아시나요?

백범이 《민주경찰》 창간호(1947)에서 밝힌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소망

현행 헌법은 임시정부 시절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임시헌장, 임시약헌 등으로도 불렀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시절 마련된 제도들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임시정부의 경찰제도도 마찬가지다. 백범이 임시정부의 ‘첫 경찰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임시정부에는 내무부 산하 경무국을 중심으로 연통제 경무사·상해교민단 의경대, 중경 시절 경위대 등의 경찰 조직이 있었다.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변천사를 훑어보며 백범이 기고문을 통해 발표했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짚어봤다.

글 박성순(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시정부 문지기를 자청했던 백범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제정하고, 정부 각 부처의 법적 근거와 분장사무를 규정했다. 임시정부 경찰기관인 경무국도 이때 출범했다. 1919년 3·1운동 발발 직후 상해로 망명한 백범은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조국을 위해서라면 문지기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겸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차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직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백범은 내무총장 안창호에게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청원했다. 백범으로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분수가 그 정도면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범이 스스로 문지기가 되길 청한 이유는, 첫째 자신이 본국에 있을 때 스스로의 자격을 시험해 보기 위해 혼자 순사 시험과목을 쳐봤는데 합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둘째 허영을 탐해 실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내세울 만한 번듯한 직함을 탐하기보다 정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문지기가 되겠다는 백범의 청에 흔쾌히 호응하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내정하고자 했다. 이후 각 부 차장들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백범의 경무국장 임명안이 통과됐다. 다음날 안창호는 백범에게 경무국장 임명장을 교부하며 취임해 줄 것을 권했다. 그러나 백범은 “순사의 자격에도 못 미치는 자신이 경무국장의 직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경무국장직을 사양했다. 안창호는 국무회의에서 “백범이 여러 해 감옥생활을 해 일제의 사정을 잘 알고, 혁명 시기에는 인재의 정신을 보았기에 등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무국장에 선임된 만큼 사양하지 말고 공무를 집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이다. 백범은 결국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의 협조

백범은 1919년 8월 12일부터 1921년 5월까지 경무국장으로, 1932년 1월 11일부터 7월까지의 의경대장으로 재직했다. 경무국장은 신문관·검사·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일까지 담당했다. 경무국의 주요 임무는 일제의 정탐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며 일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투하는가를 살피는 일이었다. 백범은 당시 정복과 사복 경호원 20여 명을 선발해 이 일을 수행했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과 대립 암투한 경쟁상대는 홍구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었다. 공공조계에 있던 미국과 영국은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이전부터 각각 일본과 영·일동맹 및 카르라-테프트밀약을 체결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다. 반면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혁명 전통으로 고수하던 프랑스는 자유주의 노선을 선도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시정부가 들어서 있던 프랑스 조계 당국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었다. 일본 영사가 한국 독립운동자의 체포를 요구하면 프랑스 당국은 미리 임시정부 측에 통지했고 마침내 체포할 때에는 일본 경관을 대동하고 빈집을 수색하고 갈 뿐이었다. 프랑스 조계에 임시정부를 세운 이유이기도 했다.

1922년 3월 28일 의열단원들이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상해 황포탄에서 저격한 의거의 여파로, 일·영·프 세 나라가 합작으로 프랑스 조계 내의 한인들을 대거 체포한 일

이 있었다. 이때 백범도 체포됐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프랑스 측에서 백범이 일본 영사관에 끌려가 조사받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백범보다 먼저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원세훈 등 5명까지 백범의 신임을 담보로 모두 석방시켰다. 프랑스 조계 내에서 행정·외교·치안을 담당하던 프랑스 공무국은 백범이 보증하면 현행범 이외에는 즉시 풀어주었다. 이러한 프랑스 측과 백범과의 관계를 눈치챈 일제는 더 이상 백범의 체포를 요구하지 않고 공공조계나 그 외의 중국령으로 백범을 유인해 체포할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백범은 프랑스 조계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않았다. 1924년 1월 아내 최준례가 위독해 공공조계 내의 홍구 폐병원으로 옮겨갈 때 그것이 마지막임을 직감한 백범이 따라나서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최준례 여사는 홍구 폐병원에서 쓸쓸히 사망했다.

일제 밀정의 색출

경무국장 백범의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일제의 밀정들을 색출한 뒤 적절히 처분한 일이었다. 일제의 고등정답꾼 선우갑을 체포했을 때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사형집행을 원하자, 그의 뇌우침을 참작해 방면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선우갑은 본국으로 돌아가 임시정부의 덕을 칭송하고 다녔다. 일제 경찰의 경부로 있던 강인우가 상해에 침투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백범을 만나기를 자청해 총독부의 음모를 알려줬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가짜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 공로로 풍산군수로 승진됐다.

1919년 10월 국내 비밀결사 대동단 총재 김가진이 상해로 망명한 사건은 일제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김가진은 구한말 내부대신으로서 경술국치 후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이를 수치로 여긴 일제는 김가진 머느리 정정화의 사촌오빠 정필화를 비밀리에 파견해 김가진의 귀국을 은밀히 중용했다. 이것을 탐지한 경무부에서는 정필화를 검거해 자백을 받은 후 교수형에 처했다.



《민주경찰》 창간호(1947. 6. 20. 발행)에 실린 김구 선생의 기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기념사진(1945. 11. 3.)
맨 앞줄 중앙에 백범이 위치해 있다

일본 영사관의 밀정 황학선을 검거해 사형시킨 것도 주목할 만하다. 황학선은 대동단원 나창헌 등을 포섭해 임시정부에 대한 반감을 심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나창헌·김기제·김의한 등 십수 명이 임시정부 내무부를 습격했다. 경무국 심문 결과, 황학선은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자금과 계획을 제공받아 정부 각 총장과 경무국장 백범까지 전부 암살할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형을 집행했다.

한번은 박모라는 청년이 경무국장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그는 일본 영사관에 포섭돼 백범을 죽이려고 했으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백범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서는 차마 살해할 수 없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받은 권총과 수첩을 백범에게 제출했다.

이와 같이 백범은 밀정들로부터도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무국 부하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구축했다. 당시 백범은 “일을 맡기면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니고 경무국장직을 수행했다.

상해 시기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경찰조직인 내무부 경무국 직제가 처음 규정됐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2일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이 임명됐다. 그의 뒤를 이어 김용원(1921. 5.~미상)·민충식(1922. 9. 7.~미상)·손두환(1924. 12. 25.~1925. 4. 28.)·나창헌(1925. 11.~미상) 등이 상해 시기 경무국장을 수행했다. 1926년 이후 경무국 관련 인사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임시정부 경찰은 상해 초기 및 중경 시기에 가장 활발한 인사 구성과 이동이 있었고 현재까지 경무국(과) 33명, 연통제 경무사 20명(경무사장 3·경감 17), 의경대 18명, 경위대 18명 등 총 89명이 확인된다.

경무국은 국장·경호부장·경호원 등으로 구성됐다. 백범의 경무국장 취임 이후, 1919년 9월 3일 자로 김희준·전재순이 경호원에 임명되면서 경무국 인원이 본격 충원돼 1920년 무렵 경무국 인원은 20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1925년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 등으로 임시정부 조직이 약화돼 경무국 조직도 간소해졌다.

1926년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부서 조직규정’을 통해 관제를 개정했다. 제11조에서 “임시정부에는 경무국을 두고 경무주임 1인, 경무원 약간을 배치해 내무부장의 관할 하에서 정부 소재지의 행정·사법 일체 경찰사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했다. 1926년 당시 임시정부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반영해 각 부서 조직의 규정도 간소화됐으나, 국(局) 단위 부서의 사무분장은 경무국이 유일하게 명시됐다.

임시정부의 경찰조직은 내무부 산하 경무국(과)과 함께 연통제 산하 경무사(과)·대한교민단 산하 의경대·중경 시기 경위대 등이 해당된다. 임시정부 요인경호·청사경비 등 임시정부 수호와

밀정 처단 등 주로 현재의 경비·경호·정보·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19년 7월 10일 임시정부는 국무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를 발포하고, 같은 해 12월 1일에는 개정 교령 제2호로 ‘임시지방연통제’를 공포했다. 비밀조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지방 연락 조직의 구축을 추진한 것이다. ‘임시지방연통제’에서는 각 도에 지방경찰조직인 경무사를 설치하고 경감 2인을 두어 경찰 및 위생사무에 종사토록 했으며, 각 부군에도 1인의 경감을 두어 경찰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평안도·함경도·황해도 등에 경무사장 및 경감 등이 상당수 임명됐다.

임시정부는 국외 동포사회를 위해서 거류민단제를 시행했다. 거류민단제는 1920년 10월 7일 내무부령 제4호에 의해 ‘임시교민단제’로 변경됐다. 교민단은 민단 업무와 함께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해 의경대를 조직해 치안을 확보하고자 했다. 1923년 말, 내무총장 백범의 주도로 교민단 산하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가 조직됐다. 그 지휘는 민단장에게 일임하고 내무총장 백범이 고문으로 추대돼 업무를 시작했다. 의경대는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 밀정을 색출하거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중경 시기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상해를 떠난 후 임시정부의 경찰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중경에 정착한 후 관제가 개정되면서 경무과가 설치돼 차츰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복구됐다. 1941년 조직된 경위대는 1943년 3월 30일 공포된 ‘대한민국 잠행관제’에서 조직이 공인됐다. 크게 8개 사무로 구분된 내무부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무·경무·사회 3개 과가 설치됐고 경무과가 설치된 후 임명된 제1대 경무과장은 김관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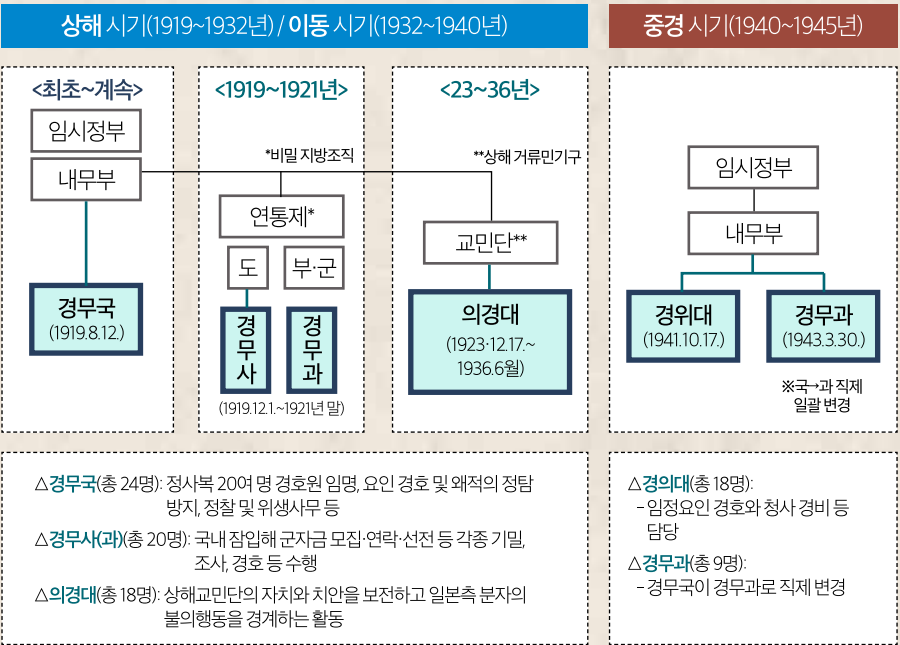
경무과의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경찰 업무 외에도 선거 시행과 기타 일반 행정사무까지 집중됐다. 경무과가 선거 및 지방자치 사항과 인구조사, 징병·징발 사항까지 담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안착해가는 과도기에 경무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 1944년 5월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를 통해 경무과는 선거 등의 업무를 민정과에 이관하고 경찰 고유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1944년 6월 내무부 인사에서 경무과장 겸 경위대 대장에 이규학이 임명됐다.

경위대 편성 직후 중국 국민정부는 군사위원회를 통해 경위대의 설립 목적과 성격을 문의했다. 이때 백범은 경위대가 “행정부 내치의 문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위대가 군사조직이 아닌 경찰조직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1945년 들어 임시정부가 적 정보 수집 및 초모 공작에 더욱 매진함에 따라 경무과·경위대 소속원들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돼 대대적으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일본군에서 탈출해 중경까지 입성한 ‘학병 출신자’들을 기반으로 재편된 경위대는 임시정부와 요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이 임무는 광복 후에도 계속됐다.

백범이 꿈꾼 현대 경찰

백범은 1947년 6월 20일 자로 간행된 경찰기관지 《민주경찰》 창간호에 ‘자주독립과 민주경



찰’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서, 또 임시정부를 이끈 주석으로서 해방 이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한 것이다. 백범은 대한민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이라는 제목에 간결 명료하게 집약했다.

일제식민지와 미군정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오직 원했던 것은 ‘자주독립’이었다. 이 점을 재차 강조한 백범은 “경찰교육 당국이 우리 경관들에게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배양하기 위해 꾀기했다는 점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축하하는 바이며 또한 전 국민이 일치하게 축하할 바”라고 명시했다.

또한 해방 후의 대한민국 경찰은 일제식민지 잔재를 일소하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세력이 돼줄 것을 호소했다. 애국자를 가리켜 강도·살인·방화범으로 몰아 갇은 악형을 다 하던 일제의 잔재를 씻어내고, 조선을 멸시하며 조선인을 착취하던 ‘앞잡이 경찰’에서 벗어나 애국안민(愛國安民)에 앞장서는 신 경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의 자주독립을 강조한 백범의 요청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제까지 한국경찰사는 근대 부문에서 1894~1910년까지의 제도사를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1910~1945년을 공백기 혹은 암흑기로 치부해왔다. 게다가 미군정의 경무국 설치 시점을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임시정부의 경찰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관점이다. 아울러 현재의 ‘경찰의 날’이 대한민국 법통인 임시정부 경무국의 창설일도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 공식기구인 치안국 창설일도 아닌,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에 따르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일제 고문 경찰의 후예’라는 불명예를 씻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임시정부 경찰의 전통을 다시금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의 오래된 바람이기도 하다.

자주독립과 민주경찰(번역문)

- 감구 -

지금 중대 시국에 처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민주경찰 정신의 함양을 기도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상식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주독립에 입각한 굳은 신념을 배양해 그 지상명령을 능히 실천할 애국애민의 신 경찰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경찰 기관지 《민주경찰》을 발간하기로 결정한 경무부 교육당국은 나에게 창간 축사를 구하였다.

그 취지에 축하할 이유가 충분히 표현되고 있으니 “그대로 되어지이다”하면 나의 축사는 다 될 줄로 믿는다. 그러나 이미 붓을 잡은 터이니 몇 가지 소감을 들어서 나의 축하하는 뜻을 좀 더 충분히 표시하려 한다.

一. 우리가 처한바 지금 시국은 엄중하다. 국가적으로는 아직 독립이 없고 민족적으로는 아직 자주가 없으며 환경적으로는 남북이 양단되고 국제적으로는 분할점령이 되고 사상적으로는 좌우가 갈리었다. 그 결과로 사회는 혼란하고 인민은 도탄에 빠졌다. 그러하되 아직까지 안녕질서가 크게 파괴되지 않은 것은 경찰의 공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은 경찰에 사의를 표하는 것보다 공격을 더 많이 한다. 물론 경관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범한 과오로 인해 생기는 정당한 책임추궁도 있는 것이며 또 악의에서 나온 모략적 비난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라도 경찰에 동정할 것이니 그 자신으로서는 억울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교육 당국은 그 공로를 과장하거나 자기의 억울한 것을 변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과오만 시정해 명실상부한 민주경찰을 배양하기에만 노력하려 한다. 그 의도야말로 벌써 민주정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경찰의 앞날을 위해 축하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대로 실현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민중이 싫어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경관만이 봉사하게 될 것이다.

二. 우리의 문화는 세계에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진국가보다 낙후한 것이다. 더구나 세계는 전진하고 인류는 진보하고 있으니 낙후된 우리로서 부지런히 학습하지 아니하면 외국으로부터 오는 “독립국민의 자격이 없으니 우선 신탁통치나 받으라”는 모욕은 점점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제 직장에서 제 직무에 충실하는 동시에 사회인 즉 일개 공민으로서 상식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해방자에게서 다시 해방을 구하고 있는 우리는 부단히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밖에 있는 일반 동포들도 학습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교육 당국이 이 점에 착안해 《민주경찰》을 발간하게 되어 이로 인해 일반 경관이 학습할 기회를 더 하나 얻게 되는 것은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三. 자주독립은 우리의 최고 이상이며 최대 희망이다. 우리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요, 미국인에게도 소련인에게도 그러한 것이다. 서기 1776년에 미국인이 영국인에게서 피로써 싸워 자주독립을 얻은 것과 1922년에 소련인이 연합군의 시베리아 출병을 배격하고 혈투로써 자주독립을 얻은 것은 다 적절한 예이다. 자주독립이 없는 민족에게는 안락한 생활이 있을 수 없으며 자주독립을 무시하는 세계에는 평화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 생명과 전 재산을 바쳐 싸워 자주독립을 얻으려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주던 멸국폐민(滅國弊民)¹⁾의 독약을 내포한 독립은 다시 받지 아니 하려니와 독립으로 위장한 반신불수의 보양제도 먹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립을 그리워하는 국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라도 독립이라고 주면 다 받아먹지는 아니할 것이다. 오직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자주독립’ 뿐이다. 그런데 우리 경찰교육 당국은 우리 경관들에게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배양하기 위해 필기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축하하는 바이며 또한 전 국민이 일치하게 축하할 바이다.

四. 우리에게는 일본 제국주의가 구사하던 경찰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경관은 조선을 멸시하며 조선인을 착취하던 앞잡이가 되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애국자를 가리켜 강도·살인·방화범이라 하고 갖은 악형을 다 하였던 것이다. 과거의 상태가 이러했으므로 현재의 경찰계에도 의식 무의식 간에 일제의 잔재가 아직 약동하고 있으며 협잡 모리배의 출몰이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신 경찰의 수립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 신 경찰이야말로 애국안민(愛國安民)의 신 경찰이 되어야 하겠다. 일제가 패주한 후에 우리 경찰이 애국안민의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우리 국가가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억지로라도 요청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교육 당국이 이에 중점을 둔 것은 감사하고도 축하할 만한 일이다.

끝으로 내가 우리 경관 동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는 제군들이 매사에 임할 때 먼저 자주독립의 정신에 비추어보고 다음에 애국안민의 척도로 재어본 뒤에 단행하라는 것이다. 

경찰기관지 《민주경찰》 창간호(1947. 6. 20.) 축사

1) 멸국폐민: 나라를 멸망케 하고 백성을 피폐케 함

김구의 길을 따르는가? 우리는 왜

조계사(曹溪寺) 편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을 맞이하고 난 뒤 그토록 염원하던 일제강점기의 끝을 맞았지만 백범은 멈출 수 없었다.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외세의 압력에 맞서, 또 한편으로는 뜻을 함께한 동지들의 마지막을 거두기 위해 노력을 거듭했던 것이다. 반탁운동과 더불어 삼의사의 환국과 장례를 위해 힘써온 백범, 그날의 행적을 조계사에서 찾아봤다.

글 신복룡(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그대들이 내 영전(靈前)에 한 잔 술을 따라야 도리이거늘,
내가 그대들의 영전에 제주(祭酒)를 올리니
이리 애통할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태고사를 찾아 조계사로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답사팀 일행은 윤봉길(尹奉吉)·이봉창(李奉昌)·백정기(白貞基) 삼의사(三義士)의 봉환 행적을 찾으려 문헌에 있는 대로 태고사(太古寺)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나섰다. 그런데 그 태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산의 태고사가 아니라 지금의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에 있는 조계사의 옛 이름임을 알았다. 삼각산을 헤매는 고생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조계종 본사에 이르니 늘 다니던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임무를 띠고 온 걸음의 소회가 달랐다.

날씨는 덥고 사찰 입구는 참배객과 피켓 시위대와 행인들로 인산인해였다. 입구에 이르러 자원봉사 안내 신도에게 온 뜻을 말하니 그들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종무소로 연락을 해봤으나 만날 사람도 없었다. 입구의 가두 선반에 놓인 열네 쪽짜리 접이식 안내 팸플렛이 전부였다. 아마도 이 장(章)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작문을 해야 하나 보다 여기며 빈손으로 돌아섰다. 선조(宣祖)의 여덟째 아들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瑋)이 썼다는 대웅전 현판이 안됐다는 듯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대문교회에 들러 손유탁(孫允鐸) 목사에게 조계사에서 겪은 일을 푸념처럼 늘어놓았더니 자신이 조계종 포교국장 성진(成眞) 스님을 잘 안다면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목사님에게서 사찰 답사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다. 몇 차례 성진 스님께 연락했으나 매우 바빠 보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의 수련회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보름이 지나서야 서로 시간이 맞아 찾아갔더니 성진 스님은 포교국장에서 종단의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 이를테면 속세에서 말하는 청소년국장인 듯이 보였다. 어쩌나 달마대사(達磨大師)와 모습이 똑 닮았던지 마중 나온 모습을 보고 ‘억’ 소리가 나도록 놀랐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했더니 성진 스님은 친절하지만 안타까운 듯이 조계사에는 역사를 기록한 책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성진 스님은 망연자실한 나에게 대차대비한 미소를 보이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알려 주었다. 첫째는 종로구청에서 관내 문화재 실측 조사를 하면서 「조계사실측조사보고서」를 간행한 적이 있으니 그곳에 연락해 그 책을 얻어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교신문사를 찾아가 데이터베이스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라 종로구청에 「조계사실측보고서」에 대해 문의했으나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불교신문사를 찾아가 자료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다행히 몇 가지 문헌에서 삼의사의 봉환 기사를 찾아 이리저리 맞추어 봉환식의 모습을 어렵풋이나마 그려 볼 수 있었다.

조계사는 일본강점기인 1910년, 조선 불교의 자주화와 민족자존의 회복을 염원하는 스님들에 의해 각황사(覺皇寺)라는 이름으로 종로구 수송동에 창건된 절이다. 역사가 짧고 이렇다 할 기록도 없는 절이 된 것이 이해됐다. 당시 각황사는 근대 한국 불교의 총본산으로 최초의 포교당이자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사찰이었다.

불교계에서는 1937년에 이르러 각황사를 현재의 조



조계사 대웅전의 현판. 선조의 아들 의창군 이광(李瑋)의 글씨

계사로 옮기는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새 절을 지었다. 태고사를 창건하면서 대웅전은 정읍(井邑)에 있었던 보천교(普天敎) 십일전(十一殿)을 이전해 개축했으며, 1938년 10월 25일에 총본산 대웅전 건물의 준공 봉불식을 거행했다.

1941년에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이 태고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불교조계종이 발족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조계사는 대처승 사찰이었다. 그러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지시로 1954년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는 불교 평화 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대처승 사찰에서 비구승 사찰로 바꾸고 현재에 이르러 한국 불교의 대표 종파인 조계종의 본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의사, 원혼(冤魂)의 귀국

환국한 김구는 그 바쁜 와중에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삼의사의 유해를 환국해 안장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들을 비롯한 젊은 열사들을 죽게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던 터였다. 거사 장소로 떠나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지하에서 만나자”는 말을 나누

며 헤어진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반탁을 주도하던 김구가 1945년 12월 31일에 상임위원회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무정부주의자 박열(朴烈)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6년 3월 18일, 박열은 국내 신문에 좌우 대립을 비판하고 건국 사업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삼의사의 유해를 찾아내어 동경(東京)에 있는 신조선건설동맹(新朝鮮建設同盟) 사무실에 봉안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의사의 유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지 못하던 터에 박열의 제보에 용기를 얻은 민주의원원은 삼의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박열

이강훈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동경에 있는 신조선건설동맹 부위원장 이강훈(李康勳)과 외무부장 유호일(劉虎一) 그리고 김기성(金基成)과 김정주가 먼저 윤봉길과 백정기 의사의 유골과 유품을 찾아 귀국했다. 서울에 들어온 그들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일동포 220만 명이 일본에 있었는데 해방 후 귀국한 게 약 100만이요, 현재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조국의 정세를 염려하고 있는 게 120만 명가량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매일 2홉 1작의 배급을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나 일본 전체에 배급미가 부족하여 5월 말경이면 배급이 없을 것으로 보여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포 가운데에는 실직자의 숫자가 절반을 넘어 하루빨리 조국이 완전독립하여 귀국한 뒤 건국 대업에 참가할 날을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참된 노선으로 지도하려고 조직된 것이 신조선건설동맹입니다. 이 동맹은 2년 만에 아키다(秋田)형무소를 출옥한 박열을 중심으로 민족 단결과 생활 안정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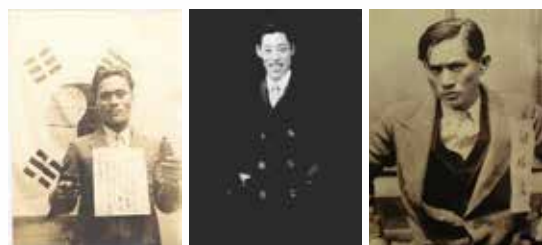
우리는 제일 먼저 윤봉길 의사의 유골을 찾으러 가나자와(金澤)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라 알 수가 없어 며칠을 묵고 있는데, 부근 왜놈들이 입을 합하여 모르겠다고 하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이 부락의 묘를 전부 파보겠다’고 말하였더니, 놀랐는지 우리가 자고 있는 밤중에 팻말을 꽂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쁨에 넘쳐 우리가 한숨에 파본 즉, 목제 십자가와 자색 양복과 검정 구두와 중절모자와 유골을 발견하였습니다.

고 이봉창 의사는 ‘우라와(浦和)형무소’ 묘지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대신을 만나 이야기하고 우라와형무소에 가서 물은즉 소장은 모른다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더니 교무관을 불러 가르쳐 주도록 해 겨우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가사키(長崎)로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찾으러 가 그곳 형무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인즉 독장(獨葬)이 아니고 다른 시체와 합장(合葬)을 한

것 같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분개한 우리는 ‘한 나라의 의사를 이름도 모르고 추악한 다른 시체와 합장을 하는 모욕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끌어 오르는 분노에 피를 억지로 참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기세에 놀랐는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매장 장부를 조사하더니 ‘독장입니다. 장소도 알겠소’하고 사과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옥사하신 백 의사의 유골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함께 도쿄 리쿠다이(陸大)에 있는 우리의 본부사무소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지난 2월 19일, 간다(神田) 공립강당에서 유골봉환회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귀국에는 우선 윤 의사의 유품·양복·모자·구두 그리고 당시 윤 의사의 사건을 게재한 신문의 복사본만을 모시고 왔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와 같은 이강훈의 보고에 따라 김구는 정인보(鄭寅普)를 대동하고 6월 15일에 부산으로 내려갔다. 일행은 부두로 나아가 삼의사의 유해를 마중했다. 유해는 중앙동(당시는 大倉町)에 있는 부산부립유치원에 모셨다. 이튿날, 오전 8시를 지나 유해는 윤봉길 의사를 처형할 때 쓴 십자가를 앞세우고 부산역으로 행진했다. 학생과 만장을 든 조객과 기마 경찰이 길에 가득했다. 하늘도 슬픈 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운구 일행은 부산공설운동장으로 이동해 추도식을 열었다. 이강훈과 윤봉길 의사의 동생 윤남의(尹南儀)와 독립촉성위원회 부산지부장 최석봉(崔錫鳳)이 유해를 가슴에 안고 걸었다. 부산에서 유골 봉환식을 거행하고 영구를 서울 태고사로 모시기로 했다.

삼의사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며

삼의사의 유해는 부산을 출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 정각 특급 열차로 서울역에 도착했다. 역두에는 민주의원 부의장 김구식(金奎植)을 비롯해 오세창(吳世昌)·원세훈(元世勳)·함상훈(咸尙勳) 그리고 각 민간단체가 출영을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김구가 열차에서 내리자 정렬한 출영객 일동이 경건하게 경례를 했다. 이어서 유해 운구 일행은 서울역장의 안내로 귀빈실에서 잠시 휴게한 다음 소년군을 선두로 태고사로 향했다.

때마침 쏟아지는 비에도 연도의 관중들은 열사들을 모신 행렬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날 7시, 유해가 태고사에 도착하자 바로 그곳을 방문한 이승만과 일반 조객들이 목례를 올렸다. 간단한 불교 의식으로 안위식을 마치고 임시봉안소에 유해를 안치했다. 이날 역두에 출영한 김구식은 다음과 같은 감상을 말했다.

“급한 대로 세 분만을 이렇게 먼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모셔올 분과 국내에서 모셔야 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안장할 묘소와 장례식 등 우리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국민 전체가 다시 성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김구는 지난날 생사를 함께 하다 먼저 순국의 혼백이 된 동지 삼열사의 유골을 받들고 서울로 향하면서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답화문을 발표했다.

“…… 그 세 사람을 죽으라고 내보낸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을 보내고 나만이 살아 있으면서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삼열사에 대하여 부끄럽기 한량 없고, 회고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심령을 바치고 지하에 잠드신 선열과 충의지사가 어찌 삼열사뿐이리오만, 대담무쌍히 왜적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던져 조선 민족의 불멸의 독립 혼을 중외에 떨친 것은 아마 이 세 분이 으뜸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유골을 모시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억제할 수 없으며 그들(과 함께) 지하에 불귀의 손이 된 몇만 몇천 명의 동지들의 사심 없는 애국의 지성을 본받아 하루바삐 통일된 우리 정부의 수립이 실현되도록 3천만과 같이 분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봉길의 동생인 윤선의(尹璿儀)가 다음과 같은 답화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물론 36년 동안 싸운 결과 기쁨의 이날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추도식을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성대히 모시게 됨은 참으로 우리 유족으로서는 넘치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 유골 앞에 뵈을 적에 나는 전쟁에 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형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기쁜 감격으로 오로지 눈물뿐이었습니다. 저는 형님 유골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형님은 형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조선의 할 일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려한 힘이거나 나의 힘을 다하여 우리 자주독립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굳게 맹세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김구가 삼의사를 통하여 일본의 정적들을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반민족주의자나 변절자를 사형(私刑)한 데 대한 역사적 평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이를 테러리즘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그를 테러리즘으로 보는 견해는 김구의 충정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구는 1946년 7월 4일에 삼의사의 안장식을 앞두고 “동포에게 고(告)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경을 피력한 바 있다.

“나를 테리의 괴수라 하였으니 나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금월 6일 우리 민족 전체가 경의를 다하여 봉장(奉葬)케 된 삼열사에 윤(尹)·이(李) 두 의사의 의거를 김구가 사주(使囑)하였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표된 것이다. 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서는 이 이상의 방법이라도 취하였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일꾼(一分)이라도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단(壇)에 내려와 동포 앞에 솔직히 사의를 표하려고 한다. 친애하는 동포여! 이국땅(絕域)에서 전전할 때, 고국의 산하를 바라보면서 그리운 동포를 연상할 때 어찌 오늘과 같은 경우를 뜻하였으랴? 동포여! 반성할지이다. 동포여! 단결할지이다.”

그런데 김구를 숭모하는 무리들 사회에서는 이 테리

리즘이라는 용어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오해나 비난을 피하고자 테러리즘을 학술적으로 정의하자면, “자금이나 훈련이 부족하고 적군의 엄격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정규적이고도 조직적인 투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교자적 우국심으로 무장된 개별적 투사가 단독의 힘으로 적군에게 무장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조국의 명분과 기개를 드높이고 적군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투쟁 방법”을 뜻한다.

츨스키(Noam Chomsky)의 말을 빌리면, “우아하게 격식을 차려 요청하는 바가 이뤄질 희망이 없을 때 폭력에 호소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국독립운동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열 투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테러리즘이라는 단어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아마도 중동의 이슬람이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상 심리의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최초의 국민장

태고사에 유해를 안치한 장례위원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국상(國喪)임을 알리고 6월 30일에 장례를 집행하되 상중에는 분위기를 엄숙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해 국민의 준수사항을 알렸다.

- (1) 삼의사의 국민장일인 6월 30일에 집집마다 조기(弔旗)를 달 것
- (2) 애도의 뜻을 표하며 자숙하는 성의에서 보통 음식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일체 환락장은 휴무할 것
- (3) 6월 30일 장의 날에 각 지방에서는 지방마다(군·읍·면) 추도식을 거행하되 서울에서는 6월 29일에 시행할 것
- (4) 국민장이니만큼 국민 각자의 성의에 따라 능력껏 부의금을 제출하도록 권장할 것
- (5) 추도식 절차는 지방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할 것
- (6) 삼의사의 약력은 인쇄 종이므로 인쇄되는 대로 즉송하기로 함

당초에 장례는 15일 장으로 하여 6월 30일에 모시기로 했으나 산역(山役) 등의 일이 순조롭지 않아 7월 6일로 연기됐다.

1946년 7월 6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날씨도 청명했다. 삼의사의 장례를 조문하고자 아침부터 5만 명의 시민이 시내 태고사 주변에 운집했다. 상오 10시가 되자 장례 행렬은 삼의사 봉장(奉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엄숙하게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효창원으로 출발했다. 태극기를 선두로 소년군악대와 각 정당 단체의 화환과 조기가 따르고 그 뒤에 무장경찰대가 경호했다.

이봉창 의사의 명정과 유영(遺影)을 든 남학생들이 앞을 인도하고 태극기로 쓴 흰 영구차의 뒤로 여학생들이 따랐다. 그 뒤를 이어 윤봉길 의사와 백정기 의사의 명정과 유영과 영구를 모셨는데 윤 의사의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된 십자가 모양의 사형가(死刑架)가 연도에 들어서 삼가 영구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가슴을 한층 더 비감하게 만들었다.

행렬은 많은 시민의 애도와 눈물 어린 감회 속에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종로와 남대문 앞, 서울역을 거쳐 연병정(練兵町, 지금의 남영동)으로 향했다. 동지의 유골을 받든 김구의 얼굴에는 만감이 흐르는 듯했다. 행렬이 용산경찰서 앞을 지나 이봉창 의사의 출생지인 금정(錦町, 지금의 효창동)에 이르러 잠시 멈추었다가 장지인 효창원에 도착한 것은 하오 12시 40분이었다.

효창원에서의 안장식에는 조객으로 이승만·김구·오세창·이시영(李始榮)·여운형(呂運亨)과 한국민주당·조선공산당·한국독립당·민주주의민족전선·대한독립촉



효창원으로 향하는 삼의사의 윤구 행렬(1946. 7. 7.)

성국민회·전국노동자평의회·부총(婦總)·애국부인회·여자국민당 등 각 정당 단체 대표자와 각 정치 단체, 각급 학교 대표자들 5만여 명이 참여해 하오 2시부터 엄숙히 거행됐다. 먼저 애국가를 합창하고 이강훈의 개회사가 있고 나서 주악이 끝나자 조완구(趙琬九)가 식사를 낭독하고 분향했다. 이어서 상해에서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신현상(申鉉商)이 목매는 소리로 제문을 낭독하고 김구와 삼의사 유가족이 분향한 다음 각 단체의 제문 낭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구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낭독했다.

“일찍이 세 분 의사가 조국의 광복과 동포의 자유를 위하여 장하신 길로 나아가실 때 결연히 떠나시던 그 기개와 도량이 너무나 비장하여 바다와 강이 거꾸로 흐르고 강과 산이 끊어질듯 하였습니다. …… 의사들의 성스러운 피가 연합군의 승리를 알리는 봉화가 되지 않았으리요. 이로써 조국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이로써 나라의 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 나는 박열 군의 성명서들 읽고 깊이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군은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무정부주의자의 이상과 신보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절대 존중하는 박 군이 ‘조국과 동포를 위하여 각자의 주장을 버리고 오직 독립 일로로 매진하자’ 하였으니 이것은 박 군이 애국의 뜨거운 마음으로 단결을 요구하는 충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동포여, 광복을 완성하여 선열의 영령을 위로할지이다.”

하오 3시 지나 하관하고 봉토해 30여 년 품었던 원한을 풀어 이 땅에 고이 잠드신 감격의 국민장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중국 속담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덮는다”더니 답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 조계사 탐방을 마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다. 우리는 식당을 찾아 내려오다 청진동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여기 어디쯤 그 유명하다는 청진동해장국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찌나 변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 한참을 헤매



김구의 사진을 볼 수 있었던 해장국집 청진옥

다가 드디어 원조 청진동해장국집을 찾았다.

그런데 문 앞에 이르자 낮익은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김구와 김두한(金斗漢)의 사진이었다. 점심을 먹고 계산대에서 주인에게 “저분들 사진이 왜 여기에 걸려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무렵 저 두 분이 우리 집 단골손님이었다”고 주인은 빠기듯이 대답했다. 듣자 하니 1937년에 문을 연 이래 한국전쟁 때만 아궁이 불이 꺼졌었다. 연륜으로 보면 벌써 80년이 지났으니 그럴 법도 하다. 세상의 인연은 이렇게 엮이어 이야기를 남기며 이어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구(지음), 도진순(주해), 『정본 백범일지』(서울: 돌베개, 2016)
『동아일보』 1945년 7월 7일자
『불교신문』
『자료대한민국사』(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조선일보』
츨스키(지음), 구미화(옮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서울: 와이즈베리, 2017)

《면담자》

성진(成眞) 스님: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어린이청소년전법단 단장
이성수: 불교신문사 기자



인도의 위대한 영혼을 찾아, 사바르마티 아쉬람으로!

한국에 백범 김구 선생이 있다면 인도에는 모한다스 간디가 있다.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로 칭송받는 그는 인도인을 단결시켜 독립으로 이끈 국민영웅이다. 간디는 평화와 비폭력을 주장한 독립 운동가이자 영적 지도자로,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있다. 2019년에는 간디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세계 각지에서 개최됐을 정도. 25개국에서 간디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15개국에서 간디 기념동상을 설치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간디 흉상 제막식이 연세대에서 열렸다.

글·사진·채지형(여행작가)



인도 지폐 속 간디



평온한 분위기의 사바르마티 아쉬람

소금행진이 시작된 사바르마티 아쉬람

인도의 오늘은 간디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인도 어디에 가나 간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지폐만 봐도 안다. 인도 모든 지폐에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간디 얼굴이 있다. ‘인도의 국부’ 간디 정신을 좇아 많은 이들이 사바르마티 아쉬람을 찾는 이유다.

사바르마티 아쉬람(Sabarmati Ashram)은 간디가 1917년부터 1930년까지 머문 곳으로 간디 정신이 응축된 장소다. 비폭력저항운동의 상징인 ‘단디 소금행진’도 이곳에서 시작했다. 소금행진은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영국의 소금법에 반대한 비폭력 시위로, 그는 땀별 아래 24일 동안 388km를 걸었다. 출발 때만 해도 60여 명이었던 인원이 단디 해변에 도착했을 때 6만여 명에 달했다. 이 행진은 인도 전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인도 독립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 지금도 사바르마티 아쉬람은 해외 주요 인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모디 총리가 함께 돌아보는 인도 필수코스 중 하나다.

간디의 정신이 숨 쉬는 도시, 아메다바드

사바르마티 아쉬람은 아메다바드(Ahmedabad)에 위치하고 있다. 아메다바드는 인도 8대 도시 중 하나로 구 자라트주의 경제수도다. 인도 최초로 도시 전체가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지역으로 섬세한 이슬람 건축과 아름다운 직물이 유명하다. 명소가 많은 아메다바드에서도 단 한 곳만 꼽으라면 사바르마티 아쉬람이다. 아메다바드를 ‘간디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간디는 아메다바드에서 15년을 보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돌아온 후 아메다바드에 자리를 잡았다. 1915년 코차람 분갈로에 사티아그라하 아쉬람을 세워 운영하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 2년 후인 1917년 사바르마티 강둑 부근으로 터를 옮겼다. 현재의 사바르마티 아쉬람이다. 간디는 이곳에서 그의 비전을 펼쳤다. “외부보다 인도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며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짓는 등 다각도의 자활 운동을 전개하고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고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차르카(Charkha, 인도 물레)를 돌리자고 외쳤다. 영국으



아쉬람 입구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간디 부조



사바르마티 아쉬람 지도



히르다이 쿤지의 차르카



사바르마티 아쉬람을 방문한 해외 유명 인사들

로부터 독립을 이끌어 낸 비폭력운동이 태어난 산실이 바로 사바르마티 아쉬람이었다.

‘단순한 삶, 고상한 생각’을 보여주는 히르다이 쿤지

간디를 생각하며 사바르마티 아쉬람으로 향했다. 처음 여행자를 맞이한 것은 지팡이를 짚고 걷는 마하트마 간디의 부조였다. 소음으로 어지러운 거리와 달리 아쉬람에 들어서자 새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방문자가 적지 않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다들 천천히 움직이며 ‘인도 국부’에 대한 예를 갖추는 듯했다. 몇 걸음을 떼자 앉아있는 간디상이 나타났다. 약간 굽은 어깨와 마른 모습이 고뇌하는 부처상과 겹쳐졌다. 이렇게 작고 여린 몸과 지극히 단순한 행동으로 인도인을 일으켰다니 경이로움이 일었다.

사바르마티 아쉬람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뉜다. 간디가 살던 집과 현대적으로 지은 간디기념관이다. 네루 총리

주도로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기념관을 신축, 1963년 문을 다시 열었다. 현재 이곳은 인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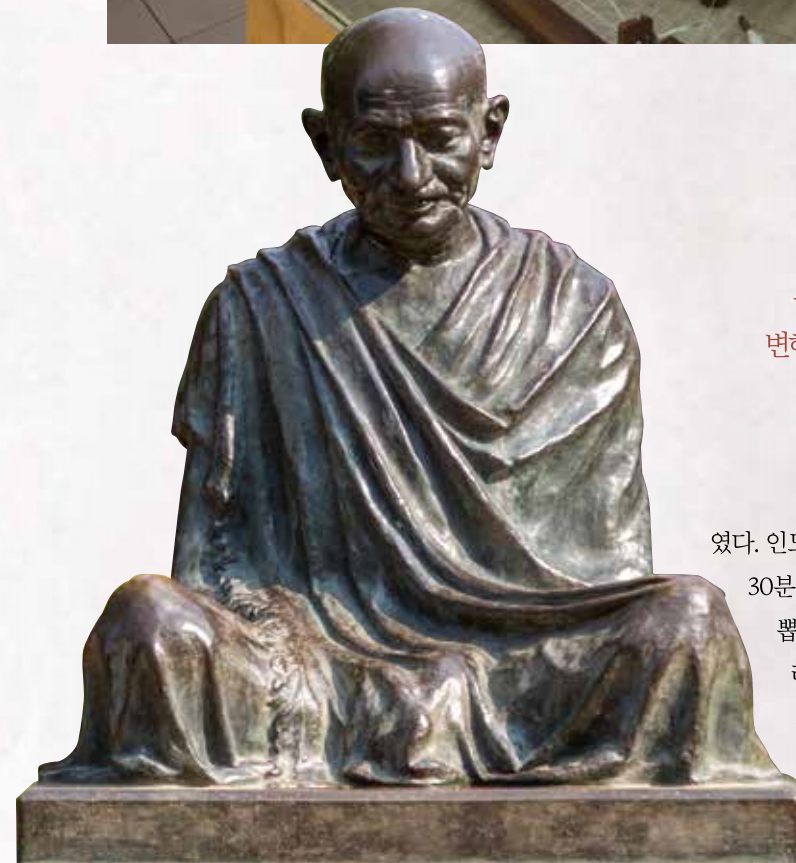
간디가 머문 ‘히르다이 쿤지(Hriday Kunj)’로 걸음을 내디뎠다. 간디의 집은 소박했다. 자그마한 방이 몇 개 있고 방안은 책상과 몇 가지 유품밖에 없었다. ‘단순한 삶, 고상한 생각(Simple life, High thinking)’이라는 간디의 생활신조가 떠올랐다.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노력과 절제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돌아온 후 기존에 입던 옷을 버리고 간단히 도티를 입고 술을 걸쳤다. “세계가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궁전이 아니라 오두막에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는 간디의 말이 들려오는 듯 했다.

인도 독립의 아이콘, 차르카

히르다이 쿤지에서 눈길을 끄는 물건은 단연 차르카



아메다바드 공항에 있는 차르카 돌리는 간디



사바르마티 아쉬람의 간디상

“간디기념관에서는 간디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국가의 아버지로 변해가는 모습 등 그의 일생과 철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였다. 인도 독립의 상징이기도 한 차르카. 간디는 매일 30분씩 오른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왼쪽으로 실을 뽑았다. 간디가 사용한 물레가 남아있어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이라도 하루 한 시간은 가난한 이를 위해 차르카를 돌리십시오”라고 간디가 옆에서 말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간디의 차르카 부근에는 방문자들이 직접 차르카를 체험할 수 있는 공

간도 마련돼 있었다.

히르다이 쿤지의 자그마한 방에는 간디가 교도소에서 쓰던 컵과 평소에 신던 나무 슬리퍼, 항상 쓰고 다니던 동그란 안경이 전시돼 있었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뜻의 세 원숭이도 간디 유품으로 놓여 있었다. 곳곳에 걸려 있는 간디 어록에도 눈길이 갔다. 철학 없는 정치·도덕 없는 경제·노동 없는 부·인격 없는 교육·인간성 없는 과학·윤리 없는 쾌락·현신 없는 종교. 간디가 꼽은 사회의 7대 악을 읽는 동안에는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간디는 이 소박한 집에서 자서전을 쓰고 저널을 편집했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뜻의 ‘마하트마’ 칭호도 이곳에서 받았다. 우리나라에 편지를 보낸 시기도 이곳에 머물 때다. 1926년 11월 26일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선생에게 “무저항적 수단으로 조선 독

립 이루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동아일보 1927년 1월 5일자 2면 머리기사로 실리기도 했다.

기도를 올리던 우파사나 만디르

히르다이 쿤지 앞에는 고요한 사바르마티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자그마한 운동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다. 이곳은 간디가 기도를 올리던 우파사나 만디르(Upasana Mandir)였다. ‘영혼을 위한 궁극적인 음식은 기도’라고 여긴 간디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기도를 올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이곳을 ‘기도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프라타나 보오미(Prathana Bhoomi)라고 부르기도 한다.

히르다이 쿤지 근처에는 손님이 머물던 난디니(Nandini)와 비노바 바베가 3년간 묵었던 비노바 쿠티르(Vinoba Kutir), 간디 조카의 집 마간 니와스(Magan



간디가 기도 드리던 우파사나 만디르



사바르마티 강

Niwas) 등 몇 채의 집이 더 있다. 이중 마간 니와스는 차르카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간디는 차르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조카인 마간랄 간디(Maganlal Gandhi)가 새로운 차르카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간디는 그를 ‘아쉬람의 영혼’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차르

카가 전시돼 있어 그들이 얼마나 차르카에 공을 들였는지 깊이 느껴졌다.

간디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간디기념관

소박한 간디의 공간을 돌아본 후, 간디 스마라크 sangrahalay(간디기념관)로 발길을 옮겼다. 어디에선가 바람이 훑 달려들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줬다. 기념관은 개방된 부분이 많아 자연광과 시원한 바람이 빈 공간을 통해 흘렀다. 이곳은



1963년 재개관하면서 놓은 기념석



'My life is my message' 갤러리



간디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는 방문객들



아메다바드 공항에 전시된 간디 책



간디의 일생을 사진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디지 인 아메다바드 갤러리



간디 사진을 찍고 있는 방문객



소금행진 모습. 페인팅 갤러리

간디 생애를 보여주는 곳으로 간디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건물은 인도를 대표하는 건축가 찰스 코레아가 설계해,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줬다.

간디기념관은 크게 3개의 갤러리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구역은 ‘My Life Is My Message’ 갤러리였다. 커다란 벽에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간디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My life is my message(나의 인생이 나의 전언(傳言)이다)”라는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 앞에 멈춰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갈랜드에서 온 인도 친구 나얀은 “이곳에 꼭 와 보고 싶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서 보고 싶었나 봐”라며 감동 어린 표정을 지었다.

옆으로 ‘Gandhi in Amedabad’ 갤러리가 이어졌다. 이곳에는 1915년부터 1930년까지 간디의 모습을 주요 사건별로 전시했다. 간디의 일생·간디의 철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평범한 청년이 국가의 아버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간디기념관에서 받은 감동을 엽서에 담아

페인팅 갤러리는 간디의 역사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곳으로 실물 크기 그림 8점이 전시돼 있었다. 갤러리 구석구석에는 현장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이며 간디의 흔적을 쫓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발걸음은 도서관 겸 자료실이였다. 간디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도서관에는 간디

가 주고받은 3만 4,117통의 편지와 간디가 발행한 신문 《하리잔반두》 등에 실린 8,781쪽의 기사, 동료들의 사진 6,000여 장 등 수천 점의 귀한 자료가 소장돼 있었다.

수수한 간디의 집과 역사적인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니 머리와 가슴에 뜨거움이 차오르는 듯했다. 간디의 일생을 훑어보며 받은 감동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웠다. 친구에게 편지 한 장 띄우고 싶어 기념관 숲을 기웃거리니 다행히 우표와 엽서를 판매하고 있었다. 여러 동지들과 편지를 나누는 간디를 생각하며 몇 줄 적어 내렸다. 간디기념관에서 쓴 엽서라 더 특별할 듯했다. 마지막 우표 한 장과 미니어처 차르카를 집어 들며 이 순간의 감동을 오래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길을 돌렸다. 📮

사바르마티 아쉬람(Sabarmati Ashram) 이용 방법

- 사바르마티 아쉬람은 매년 약 70만 명이 방문한다. 코로나19로 10개월간 문을 닫았다가, 2021년 1월 다시 오픈했다. 방문 전 개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입장료는 무료로 가이드 투어를 받을 수 있다. 투어는 영어와 힌디어로 진행되며, 90분 정도 걸린다. 차르카 이용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 주소: Gandhi Smarak Sangrahalaya, Ashram Road, Hridaya Kunj, Old Wadaj, Ahmedabad, Gujarat 380027
- 전화: +91 79 2755 7277
- 홈페이지: www.gandhiashramsabarmati.org

조국을 위해 돈보다 양심을 선택한 백범의 후예들

- 역사와 문화 전쟁 속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월드스타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은 문화공정. 역사와 문화 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다. 각국의 국민들 사이에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첨예한 갈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민감한 상황에도 금전적 이익보다 애국적 양심을 선택하는 월드스타들이 있다. 이들의 소신이 말해주는 건 무얼까.

글. 정덕현(문화평론가)

중국 문화공정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유튜버 햄지의 김치 전쟁

지난해 1월 유튜버 햄지는 중국 협업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해지사유는 햄지가 중국 대중을 모욕했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햄지가 올린 김치 먹방으로부터 비롯됐다. 무려 2746만 조회 수를 넘겨버린 이 영상은 시쳇말로 ‘초대박’을 쳤는데,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 하나에 햄지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문제가 됐다. “중국X들이 씹도 지네 전통문화라 한다”는 댓글이었고,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 중국 대중들을 모욕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국 중국 협업사의 요구로 사과방송까지 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공격은 계속됐다.

햄지가 중국 네티즌들의 표적이 됐던 것은 앞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 관련 영상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7년에도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리면서 “Kimchi is the traditional food from Yanbian Korean(김치는 연변 한국인들의 전통음식이다)”이라는 설명을 붙인 바 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 다음 리쯔치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었다. 김치 영상을 다시 찍어 게재하면서 ‘Chinese Food’라고 해시태그를 내건 것이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김치중중국 한국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가를 받은 사실을 마치 중국 김치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도한 것이 해당 영상의 근거가 됐다. 결국 이 도발적인 영상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영상의 댓글란에 우리 네티즌들의 반론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까지 나서 ‘리쯔치가 한국의 네티즌에게 못매를 맞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중국의 ‘문화공정’이 일부 인플루언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관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햄지에게 쏟아진 댓글 공격은 이 리쯔치 김치 영상에 대응한 우리 네티즌들의 댓글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다. 햄지는 욕설이 들어간 댓글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방송을 했지만 ‘김치는 중국의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명제에 동의하라는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씹고 김치는 한국 것”이라는 소신 발언으로 중국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된 유튜버 햄지의 먹방 화면(사진=유튜브 채널 ‘햄지’ 캡처)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해야 한다면 중국 활동을 하지 않겠다. 중국 분들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햄지는 저 거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앞에서 돈보다 가치를 선택했다. 중국 활동을 위해 저들의 거짓 방송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건히 밝힌 것이다.

중국의 한복 왜곡에 맞선 연예인들

햄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최근 중국의 문화공정은 도를 넘어서는 단계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김치는 물론이고 한복, 아리랑까지 그들의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사이닝니키>에서 빛어진 한복 관련 논란은 대표적 사례다. 스타일링(옷 입히기) 게임인 <사이닝니키>는 한국 출시를 기념해 게임 의상으로 한복을 선보이고 이것을 ‘한국의 전통 의상(Traditional Clothes of Korea)’이라 소개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 의상은 한복이 아닌 중국 명나라 시대의 의상인 ‘한푸(漢服)’라며 항의했고 결국 페이퍼게임즈 측은 “국가 존엄성 수호를 위해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 사태가 벌어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한복 챌린지’ 운동을 펼쳤다. 연예인들 역시 이 운동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참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방탄소년단은 미국 패션지 <코스모폴리탄>과의 인터뷰에서 한복을 언급했다. 가장 좋아하는 무대 의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RM은 “한복”을 꼽았고, 정국은 ‘아이돌’을 부를 때 입었던 옷이라고 소개했으며, 슈가는 “한복이 편해요. 대한민국의 옷으로 그때 슈트랑 매치했는데 잘 어울렸죠”라고 말했다. 한 달 전 벌어졌던 중국의 한복 왜곡을 겨냥한 말들이었다. ‘한국의 전통 의상(Traditional Clothes of Korea)’이라는 영어 자막이 붙은 이 인터뷰는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에게 한복이 우리 옷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SNS를 통한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2월 송가인은 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내건 국내 한 패션 브랜드(사진=라카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신의 인스타그램에 순백의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김치도 한복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예요!!!! 제발 #김치사랑 #한복사랑”이라는 글을 남겼다. 황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치, 한복이 자꾸 너네 거라고 하면 저거 우리 집 뒷담이라고 우겨도 되겠니? #엔간히 해라”고 일침을 날렸고 가수 이센스 역시 인스타그램에 “한푸 아니고 한복이야 도둑놈들이 뻔뻔하게. 한복이 중국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한국 거예요. 나중에 힙합도 미국 아니고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지난 3월 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광고판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Traditional Korean Clothes, Hanbok)’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복을 입은 가수 전효성의 사진이 띄워졌다. 국내 패션 브랜드 라카이코리아가 3·1절 102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이벤트다. 전효성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인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고, 라카이코리아 측도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기업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천할 방안을 고민해 한복 광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항의를 쏟아내자 라카이코리아 측은 16일 “중국 내 제품 판매 중단, 일본 네티즌 상대 법적 대응”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중국의 타겟이 되면서도 소신 밝힌 BTS

최근 들어 K-컨텐츠는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

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쾌거,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를 강타한 <킹덤>·<사랑의 불시착>·<스위트홈> 같은 K-드라마 열풍, 그리고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21세기 비틀즈’로 불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K-컨텐츠의 활동반경이 세계 시장으로 넓혀지면서 의외의 복병이 생겨났다. 그건 바로 일본·중국 같은 인접국들과 얽혀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역사, 문화 관련 갈등들이다.

그중에서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특히 일본, 중국의 타겟이 됐다. 이들이 인기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한미 우호에 기여한 이에게 주는 밴플리트상(James A. Van Fleet Award)을 수상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수상소감으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주는 상의 수상소감으로서는 당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전쟁을 중국에서는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항미원조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미국에 맞섰다’는 의미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논리로 방탄소년단이 “희생된 중국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웠고, 중국에서 돈 벌지 말고 나가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방탄소년단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를 기사화했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에 대해 방탄소년단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신 《뉴욕타임스》와 BBC 등 외국 언론들이 나서 중국을 질타했다.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지적한 것.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칼럼에서는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인 ‘아미(ARMY)’에 대한 의미심장한 기사를 실었다. “아미는 인종과 성별·연령·국적·성적 지향을 초월해 형성돼 있다. 사드 사태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중국 내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중국 팬들은 대리 구매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무려 22만 장이나 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국은 K-팝 거인에게 패배했다”고 선언했다.



인터뷰 중 대한민국의 전통복장인 한복이 편하고 좋다고 소신을 밝히는 BTS 멤버들(사진=유튜브 채널 '코스모폴리탄' 캡처)



배구선수 김연경의 운동화(사진=김연경 선수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은 멤버 중 한 명인 지민이 입은 티셔츠로 인해 2018년 일본에서 예정돼 있던 방송 출연을 취소당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티셔츠에는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과 일본의 원폭 투하 사진 그리고 애국심·우리 역사·해방·한국 등의 문구가 영문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일본 우익이 이를 ‘원폭 티셔츠’라 부르며 문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티셔츠는 광복절을 기념해 제작된 것이었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아미들이 나섰다. 당시의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일본이 ‘전범국’이라는 걸 널리 알렸고 이 내용은 CNN·BBC 등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결국 지민의 티셔츠 한 장이 불러온 논란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후에도 RM은 지난 2013년 광복절에도 트위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운동화에 ‘대한독립만세’ 부착한 김연경

우리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는 광복절에 관한 또 하나의 일화는 김연경의 ‘대한독립만세’ 운동화 이야기다. 2017년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이던 그날, 배구선수 김연경의 인스타그램에는 색다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그 사진은 같은 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배구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김연경 선수가 신고 나온 신발 사진이었다. 신발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8·15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이했던 것은 사진에 찍힌 신발과 양말이 모두 일본 제품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양말은 일본 스포츠브랜드 아시크스 상표가 찍혀 있었고, 운동화 역시 일본 스포츠브랜드인 미즈노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광복절을 기념해 ‘대한독립만세!’가 적힌 테이프를 신발에 붙이고 나온 것에 대해 반색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신발이나 양말’도

그날만은 다른 회사 걸 쓰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정이 있었다. 아식스는 2006년부터 대한배구협회를 후원해왔고 한국 미즈노는 2014년 이래 김연경선수에게 스포츠화를 협찬하고 있었던 것. 체형에 맞춰진 스포츠화를 바꾸면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게다가 후원사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프로선수로서 기본적인 일이었다. 때론 후원사 이외의 물품을 사용해 계약 파기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필 광복절에 치러지는 경기에서 일본 신발을 대놓고 신는다는 것도 잘못된 일처럼 보였다. 결국 김연경은 이 난감한 상황에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내놔다. 기존 신발에 테이프를 붙이고 광복절을 기념하기로 한 것. 사전에 업체로부터 양해도 받았다고 한다. 이날 경기는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했고 경기 후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선수단 전원은 ‘광복절 맞이 세레머니’를 했다. 함께 모여 “광복 72주년 8·15 그날의 함성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 이날 올라온 사진 한 장은 여러모로 1935년 제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땀던 손기정·남승룡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손기정은 시상식에서 월계수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는데 훗날 남승룡은 그게 금메달보다 월계수가 그렇게 부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5월, 김연경 선수는 연봉까지 삭감하며 국내로 복귀했다. 항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국내 복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의 《시나닷컴》은 김연경이 세계 여러 팀에서 고액 연봉 제의가 있었지만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2021년으로 개최가 미뤄진 도쿄올림픽까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경기가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훈아·송혜교·차인표…백범 후예들의 소신 발언들

이밖에도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연예인들은 적지 않다.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 ‘왜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며 즉석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친 나훈아의 일화는 유명하다. 관객들에게 함께 불러 달라 요청하며 나훈아는 흥겨운 ‘왜지나 칭칭나네’에 이런 가사를 덧붙였다. “울릉도 밑에 또 하나 (섬이) 있소/ 아실랑가 모르겠네/ 독도라는 우리 섬/ 누가 뭐래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결국 이 일은 일본 우익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들고 나온 것. 그러자 나훈아는 이렇게 일갈했다고 한다. “때리 직일려면 직이 빠라 캐라(때려죽이려면 죽여버리라고 해라).”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광고 제안을 거절하고 서경덕 교수와 함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판을 기증하고 있는 배우 송혜교(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지난 2016년에 미쓰비시의 광고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의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진출을 위한 광고에 송혜교의 출연을 제안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중국까지 신드롬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거액의 광고료를 제안받은 상황에서 송혜교는 서경덕 교수에게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 미쓰비시는 자동차·중공업·상사·전기·맥주·니콘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린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를 납품했고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 징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은 하지 않았다. 송혜교는 서경덕 교수에게 그 말을 듣고 “광고 제의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겠죠?”라고 물었다고 한다. 송혜교는 서경덕 교수와 함께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꾸준히 한국어 안내판을 기증해오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지만 이를 포기하고 군 복무를 했던 차인표의 소신 행보도 유명한 일화다. 2002년 개봉했던 영화 <007 어나더데이>에서 북한군 장교 역할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한 사례다. 사실 <007 시리즈>에 출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차인표는 이 작품이 남북관계를 오락거리로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제안을 고사했다.

세계화 시대인 만큼 우리네 K-컨텐츠들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주역들인 연예인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럴수록 이문화와 역사들이 뒤엎히면서 생겨나는 갈등과 논란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소신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애국에 더 큰 가치를 매기고 백범의 후예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선택을 하는 연예인·유명인들의 행보가 더욱 빛나는 이유다. 

숙명(宿命), 거부할 수 없는 ‘백범의 삶’

- 46 뜻을 잇다
항일변호의 선봉장들 ‘김병로·허헌·이인’
전병무 강릉원주대학교 연구교수
- 54 사람과 사람
춤추고 랩 하는 ‘현대판 백범’을 만나대!
글 박라선·사진 최향석
- 58 유묵의 의미
김구 선생의 유묵, 그 깊은 울림을 전하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제공

항일변호의 선봉장들 ‘김병로·허헌·이인’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운동을 변론한 항일변호사들 _1편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을 건 항일민족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일제는 수많은 항일운동가를 체포·구금·고문했고 사법기관을 이용해 강력하게 처벌했다. 이때 구금돼 재판을 받던 항일운동가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도맡아 항일민족운동을 지원하던 변호사들이 있었다.

글 전병무(강릉원주대학교 연구교수)



삼인 변호사,
뒷줄 왼쪽 첫 번째가
허헌, 두 번째가 이인.
앞줄 왼쪽 첫 번째가
김병로(<조선일보>,
1927. 10. 8.)

항일변호사와 삼인 변호사

일제강점기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와 안정적인 생활은 접어둔 채 인권 옹호와 정의실현의 길이 조선 독립에 있다고 보고, 항일운동가의 무료 변론을 자처해 식민지 법정에서 조선 독립을 변호하며 법정투쟁을 전개하던 변호사들이 있었다. 사상변호사·좌경변호사·무료변호사 등으로 불린 이들은 스스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변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일군의 변호사들을 ‘항일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당시 사람들은 항일변호사 중 김병로·허헌·이인을 일컬어 ‘삼인 변호사’로 애칭하며 존경했다. 삼인 변호사로 지칭한 까닭은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공인(誦人) 허헌(許憲), 그리고 애산(愛山) 이인(李仁)의 호와 본명에 모두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삼인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이 좌파든 우파든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며 법정투쟁을 준비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도 결코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경도되지 않았다. 당시 회자되던 ‘경부선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경부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삼인 변호사)는 대구 가는 승객이고 사회주의자는 부산까지 가겠다는 승객으로 기차를 함께 탔으니 그들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데 목적지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삼인 변호사는 민족독립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사회주의자들을 공동전선의 동지로 이해하는 특유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줬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 광고(<동아일보>, 1923. 2. 19.)



일제강점기 법복을 입은 변호사들





허헌

호는 금인(金人). 1885~1951년.

3·1운동 민족대표를 변론했으며 일제 재판장으로부터
공소불수리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헌은 함북 명천 출신이다. 지방 유학자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상경해 서울에서 공부했고 1907년 보성전문학교 법률과를 졸업했다. 그해 대한제국의 법부에서 시행된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후 변호사 제명 징계, 일본 유학, 변호사 복직, 31운동 참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제강점기 항일변호사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변호사로 명성을 떨친 사건이 바로 31운동 재판이었다. 31운동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체포되고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과 실무담당자 15인을 합친 48인에 대한 재판은 장안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건 초기 경성지방법원(이하 경성지법) 검사국은 48인을 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는데, 예심을 맡은 판사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내란죄로 재판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결정을 했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예심판사는 내란죄가 아닌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다시 경성지법으로 송치했다. 일제의 사법부도 세계가 주목하던 이 사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경성지법에서 공판 심리가 진행됐는데, 이때 변호사 허헌의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가 신청됐다.



신간회 역대위원장(위부터 이상재, 허헌, 김병로)과 문패(『동광』 23호, 1931. 7.)



허헌의 공소불수리 신청을 보도한 신문기사(〈매일신보〉, 1920. 7. 19.)



잡지에 실린 허헌 인물론(〈삼천리〉 4권 8호, 1932. 8.)



민중대회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허헌(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주문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 재판소로 지정한다.

이유 지방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경성지방법원을 본 건의 관할 재판소로 지정해 사건을 동 법원에 송치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주문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다.

허헌의 주장은 주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동 법원에 송치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경성지법은 사건을 접수 및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빈틈을 노려 일제 판사와 검사를 법률적 공지에 몰아넣었다. 결국 재판부는 법리상 어쩔 수 없이 공소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일제의 사법부와 검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허헌은 변호사로서의 직분을 잠시 접고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신간회를 이끌며 항일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는 변호사직을 수행할 때부터 익숙했던 현지 조사의 경험을 살려, 신간회가 더 적극적으로 각지 분쟁과 반일 투쟁에 깊숙이 개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제의 탄압이라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신간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 신간회운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활동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전담하다시피 했다.

허헌이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접한 허헌의 집행부는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광주학생사건 보고 대연설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일제 당국에 의해 금지당하자 허헌의 집행부는 이 시위 투쟁을 전국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천도교·불교·기독교 등의 종교단체, 조선청년총동맹·근우회(槿友會) 등의 사회단체와 제휴해 12월에 대대적인 민중대

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허헌을 비롯한 90여 명이 검거되는 세칭 ‘민중대회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좌절됐다. 그는 경성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가출옥 석방됐다. 이로써 허헌은 더 이상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불안도 따랐다. 출옥한 그해 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인은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남편과 딸 허정숙의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제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선의 단파방송(외국방송 청취용) 라디오 청취를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경성방송국 기술자들과 항일운동가들은 비밀리에 방송을 수신하고 있었다. 1943년, 허헌은 결국 일본 형사에게 발각돼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다 해방을 앞둔 1945년 4월 말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출옥한 민중대회사건 관계자 여섯 명, 왼쪽 세 번째가 허헌(〈동아일보〉, 1932. 1. 24.)





김병로

호는 가인(街人). 1887~1964년.

항일변호사의 구심점. 항일운동가들의 변호를 자처했다.

광복 후 초대 및 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김병로는 전북 순창 출신이다. 조선전기 문신 하서 김인후의 16대 손으로 부친은 사간원 간관을 지낸 양반 가문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가학으로 한학을 익혔고 16세 무렵 한말 거유 간재 전우에게 성리학을 배웠다. 항일의병이 일어나자 면암 최익현의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다. 담양 창평의 창흥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24세 때 일본 동경으로 유학했다. 폐결핵으로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했다가 1912년 다시 일본에 갔다. 유학 중 잡지 《학지광》의 편집장을 지냈고 1915년 중앙대학 고등연구과를 마치고 귀국했다. 같은 해 경성전수학교 교수 및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임용돼 법학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열중했다. 1919년 부산 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에 임용됐으며 192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사직하고 서울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다. 이후 열렬한 항일변호사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갔고 항일변호사의 구심점인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조직해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 정치투쟁에도 앞장섰다.

김병로가 처음 맡은 사건은 대동단 사건이었다. 1919년 11월 전협(全協) 등이 주동이 돼 결성된 대동단은 31운동 이후 다시 전면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포섭하고, 비밀언론을 발간하는 움직임을 전개했다. 특히 의친왕 이강을 상해로 망명시켜 임시정부의 지도자로 추대하려다가 중국 안동현에서 일본 경찰에 발각돼 간부들이 모두 체포된 대사전이었다. 김병로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 김병로의 이름이 신문 기사에 처음으로 보도된 사건은 ‘이춘숙 사건’이다. 이춘숙은 상해 임시정부의 군부 차장이자 의정원의 부의장으로, 대통령 이승만을 상해로 초청하고 미국에서 조선인 애국금 모집 공채를 발행했으며 여운형과 함께 신한문화동맹단을 조직했다. 1920년 11월 상해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돼 1921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춘숙은 “아무 변명할 말은 없으나, 다만 문화 운동은 정치 운동과 별개의 것



일본 유학 시절의 김병로(〈학지광〉 제6호, 1915.)



대서특필된 김상옥 사건의 김병로 변론(〈조선일보〉, 1923. 5. 14.)

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사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그의 활동이 제령 제7호의 구성요건 즉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였다. 재판에서 김병로는 폭력행위의 증거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열렬히 변호했다. 즉 이춘숙은 ‘군부차장’을 맡긴 했으나, 활동 내용을 보면 법령의 제정·문화 활동에 주력했으므로 직접적인 폭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인의 변호사 활동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1923년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창립이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사건이 급증하자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허헌·김용무·김태영·이승우 등과 함께 이 연구회를 결성했다. 향후 이 연구회를 항일변론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 취지는 항일운동사건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보수로 5명이 공동연구해 변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법정투쟁을 통해 항일운동의 무죄를 주장하고 형무소에 구금된 동지들에게 사식을 넣어 주고 유족을 돌보아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의 후원단체 같은 역할을 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 회원 전체가 참여해 변론한 의미 있는 첫 재판은 무엇일까.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김상옥 의사 사건이다.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도피했다. 일본 경찰은 집중적인 조사와 수색 끝에 김상옥의 은신처를 포위했다. 김상옥은 권총을 들고 치열한 항전을 벌이다 결국 자결하고 순국했다. 일본 경찰은 관련자로 김한 등을 체포하고 고문해 자백을 강요받아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 김병로는 허헌 등 연구회 멤버 전원과 함께 변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피고인들과 연대해 조선독립의 당위를 논변하는 법정투쟁을 전개했다. 김병로는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사상은 조

선인 전체가 가진 것이다. 현재 법정에 나타난 피고들의 사상은 사실 이천만의 조선 민족이 독립사상을 가진 것과 같다.’고 조리가 있는 가장 열렬한 변호를 했다.

가인의 대담한 변론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전 조선인의 주목을 받게 됐다. 김병로는 형사변호공동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이전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논변하는 법정투쟁을 전개해 본격적인 항일변론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상에 알렸다.

이처럼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창립 이후 국내 주요 사건으로 31운동 이후 각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사건, 6·10만세 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원산총파업 사건, 광주학생운동 사건, 상해 임시정부 요인에 관한 사건으로 안창호·여운형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사건, 국외의 독립운동가에 관한 사건으로 정의부의 연통제(聯通制) 사건, 간도공산당 사건 등 국내와 국외, 사상과 이념 등을 불문하고 항일민족운동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연구해 공동으로 대응했다.

한편 김병로는 허헌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 신간회의 조직 재건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1931년에 들어서 신간회 해소론과 반해소론의 논쟁이 가열되면서 신간회 내분이 격화됐다. 김병로는 신간회 해소론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그해 5월 신간회 전체 대회에서 해소안이 가결돼 결국 신간회는 해체됐다.

김병로는 1930년대 말까지 이인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활발한 법정투쟁을 전개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항일운동 사건도 이른바 지정변호사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변호사 노릇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일제의 회유와 협박이 날로 심해지자, 경기 양주군(지금의 도봉구 창동)으로 가족과 함께 낙향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현 대법원 소재 김병로 흉상



이인

호는 애산(愛山). 1896~1979년.

한글을 사랑했던 열혈 변호사.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민족문화의 보급운동에 힘썼다.

이인은 경북 대구 출신이다.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북실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의 큰 흐름을 배워보겠다는 신념으로 무단기출해 일본 동경으로 유학했다. 귀국한 후 은행원으로 취직했지만 곧 사직했는데 그해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31운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억울한 조선 동포를 구하고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법률을 선택했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법률 공부에 매진해 1922년 일본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다음 해 경성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글과 민족문화의 보급 운동에도 힘썼고, 과학과 발명을 장려하고 국산품애용 운동에도 앞장섰다.

이인이 변호사를 개업한 후 처음 맡았던 사건이 의열단 사건이었다. 이른바 제2차 의열단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일명 ‘황옥(黃玉) 경부(警部) 폭탄 사건’이라고도 한다. 2016년 개봉된 영화 <밀정>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1923년 초 의열단은 조선총독부 등 일제 관공서의 파괴와 총독 등의 일제 요인을 암살할 계획으로 폭탄반입을 추진했다. 중국 상해에서 제조된 폭탄을 안동현을 거쳐 서울로 수송하기로 했다. 그 실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시현·유석현 등이다. 이때 김시현은 종로경찰서 경부 황옥을 포섭해 동지적 결합을 맺고 함께 폭탄 반입을 수행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매수된 단원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돼 서울에 도착한 김시현·황옥을 비롯한 12명이 체포되고 폭탄 18개가 압수당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황옥은 “김시현과 함께 폭탄 반입을 도운 것은 의열단 검거를 위한 단독 비밀 작전”이었다고 주장해 일본 경찰과 의열단원들을 경악시켰다. 이 사건은 폭탄의 규모와 그 대담성, 그리고 현직 경찰이 연루된 점 등으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경성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인을 비롯한 변호인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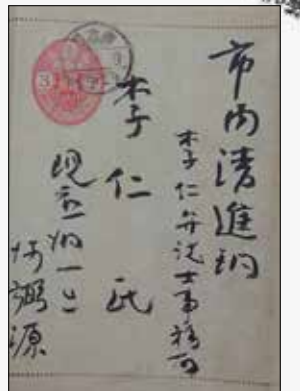
30대 초반 시절의 이인



이인 변호사 징계(<조선총독부관보>, 1930. 5. 9.)



의열단 사건의 공판 내용을 보도한 신문 기사(<동아일보>, 1923. 8. 12.)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하필원이 보낸 편지

독립운동의 시비를 떠나 일본 경찰의 비도덕적인 함정 수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종로경찰서장, 중국 안동현 부영사 등의 증인신청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을 전개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의 변론은 거사계획은 사전에 발각됐으니 미수일 뿐 아니라 이런 사건을 중벌로 처벌한다면 더 큰 사건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수원 시내에서 야학을 하고, 인근 농촌 지역에서 농민야학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야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다. 나아가 이들은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조선개척사를 조직했다. 표면상 합법단체를 가장했지만 우리 민족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이었다. 1928년 9월 동 단체의 활동이 수원 경찰에 의해 발각돼 11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구속된 11명의 학생들에 대한 예심재판 결과 2명만 보안법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됐고, 나머지 9명은 면소처분으로 석방됐다. 2명에 대한 제1심 공판이 개정된 것은 1930년 3월이었다. 이인은 사건의 변론에서 “단순한 야학 활동을 일본 경찰이 중대한 비밀결사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빚대어 양부모(일제)의 학대가 심하면 친부모(조선)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양심적 발로이고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파격적인 변론에 대해 사건담당 검사는

검사실까지 동행을 요구했다. 결국 변론이 정치에 관한 불온의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1930년 5월 정직 6개월의 변호사 징계 처분을 받았다.

1942년 12월 이인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평소 민족문화의 보급운동에 힘써왔는데, 특히 역점을 두었던 것이 조선어학회 사업이었다. 애산의 한글사랑은 유별났다. 훗날 유언으로 자신이 살던 집까지 한글학회에 기증했다. 조선어학회는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했고, 모든 출판물은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았다. 회원들 역시 독립운동과 거리를 유지한 채, 오직 한글의 학술 화와 대중화에 전력을 쏟았다. 일제는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작해, 1942년 10월부터 1943년 4월까지 이극로·김윤경·최현배·이희승 등의 학자들과 회원 총 33명을 줄줄이 체포했다. 서울에서 연행된 모든 인사들은 함북 흥원경찰서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이인의 경우는 함남 함흥경찰서에 따로 유치했다. 일제는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이인이 붙잡혀오자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때 받은 고문으로 그는 평생 보행이 어려울 만큼 다리가 상했다. 바로 함흥형무소에 수감돼 혹심한 추위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1945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경기 양주군에 은거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춤추고 랩 하는 '현대판 백범'을 만나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박물관 역사 잇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약 2년의 기획 및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한 창작뮤지컬 <백범>을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극장 용에서 선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한 개막 공연이 잠정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무대 위에 올린 것이 웬지 김구 선생의 삶과 닮아있다. 창작뮤지컬 <백범>은 성별과 관계없이 출연자 모두가 백범이 되는 파격적인 구성과 뮤지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는, 힙합과 랩을 활용한 뮤지컬 넘버로 주목받았다. 전근대적 시대 속에서 근대적인 시각으로 선구의 길을 걸었던 김구 선생의 모습을 오늘에 구현한 장우성 연출가를 만났다.

글 박라선·사진 최향석



🎙 배우 모두 백범이 돼 메시지를 던지다!

Q 기존에 김구 선생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대해서 관객이 예상하는 그림이 있다. 이번 뮤지컬 <백범>은 기존 작품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연출에 있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뮤지컬 <백범>이라고 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보지 않았더라도 마치 본 것 같은 선입견이 갖게 된다. 연출가로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도전 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모든 배우와 스텝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해방 이후 백범을 다룬 다양한 콘텐츠 중 요즘 말로 가장 ‘힙’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선언했다. 거대한 소재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하자고 생각했다. 스스로에게 이 작품의 연출은 2020년에 왜 이 공연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공연이 되기를 목표로 삼았다.

Q 김구 선생의 70여 년 인생 여정을 주요사건 위주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이 중 가장 애정이 가는 파트가 있다면 무엇인가?

A. 모든 부분이 좋았지만 특히 마음이 가는 대목은 1막 2장의 ‘대한독립만세’이다. 이 장면은 김구 선생의 활약상보다는 이봉창 의사가 한민애국단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윤봉길 의사가 의거에 성공하는 순간까지를 한 곡 안에서 풀어낸다. 각기 연대는 다르지만 여러 애국지사들의 에피소드를 몽타주 형식으로 묶었다.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이름을 남겼든 그렇지 못했던 상관없이, 수많은 이들의 독립을 향한 끝없는 투쟁의 가치를 담고 싶었다. 배우들이 연기하면서도 감정이 울컥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장면이다. 특히 김구 선생이 격하게 토해내듯이 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얼마나 많은 젊음이 죽고 또 죽어야 찾을 수 있나 대한의 독립. 임정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나, 아내 임종도 지키지 못한 나. 그런 내가 저 뿌연 안개 속으로 저 젊은이들의 손에 꽃 대신 총을 쥐어 내뭉다”라는 가사인데 쓰면서도 김구 선생의 심정이 정말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런 참담함에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져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이다.

Q 출연하는 남녀 배우 열여덟 명이 모두 돌아가며 김구 선생을 연기하는 독특한 연출방식을 취했다. 어떤 이유인가?

A. 이 작품의 독특한 연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런 소재의 역사극에는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주인공 이미지와 극의 흐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남성 위주의 서사와 여성의 역할이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된 역사극 형식은 동시대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 무대에 올라갈 배역들을 정리해보니 성비와 역할 비중에서 불균형이 심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출연자의 성비 자체를 기계적으로라도 맞추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기하는 젠더 프리 방식이 공연계에 있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 공연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



“

저 젊은이들의 손에
꽃 대신 총을 쥐어
내뿜다'라는 가사를
쓰면서 독립을 향한
선생의 강한 의지와
인간적 고뇌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

을까'라는 걱정은 있었다. 관객은 실존 인물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구 선생의 호 '백범'이 누구나 자신만큼의 애국심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하니 빈부·귀천·남녀·노소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가 분명했다. 이런 생각이 들자 한 발 더 나아가 틀을 깨 볼 용기가 생겼다. 스타 배우가 나와서 김구 선생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연기하는 것보다 전 출연자가 그 책임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 형식 자체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Q 출연 배우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가?

A. 모두가 백범이라는 기준을 세운 뒤에는 다양한 외형을 지닌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본적으로 뮤지컬은 대중예술이자 상업예술이다. 이런 무대에서 외모가 뛰어난 배우를 찾는 것은 당연한 속성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자 모든 사람으로 치환될 수 있는 배우를 획일화된 조건으로 뽑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춘 다양한 신체조건의 배우들을 뽑으려고 노력했다.

🎤 '끝나지 않은 소원'은 계속돼야 한다!

Q 작품을 통해서 기존의 김구 선생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사실 김구 선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일례로 흰 옷을 즐겨 입고 풍채가 좋아 백범이란 호가 '흰 호랑이'를 뜻하는 것으로 알았다. 무엇보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기보다 영웅적인 존재로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장면 하나, 대사 한 줄을 쓰기 위해 『백범일지』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과 고집스럽게 뿌리 내린 거목의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것을 경험하며 느낀 나의 복합적 소회를 최종 장에 담았다. 현대적인 움직임에 가미한 살풀이 같은 퍼포먼스로 삶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장면을 연출했고 김구 선생의 모친인 광낙원 여사의 목소리를 빌어 '어디 갔다 이제 왔노. 고생 많았다. 잘 왔다.'라는 대사로 나의 생각을 마무리 지었다. 고단한 한평생 진정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담고 싶었다.



Q 공연의 컨셉트가 '2020년형 백범'이다. 이에 부합하게 현대적인 랩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빠른 스토리 전개 등을 공연의 흥미로운 요소로 꼽았는데 이런 결함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A. 이 모든 시도는 동시대의 관객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공연 문법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뮤지컬 <백범>의 현대적인 표현 양식에는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다. 201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해밀턴>이다. 미국 건국의 주연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생을 힙합과 랩·R&B·화려한 안무 등 가장 현대적인 장르로 풀어낸 작품으로 21세기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 하나다. 그동안 뮤지컬에는 랩을 쓰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뮤지컬 배우의 랩 스킬이 기존 랩 가수와 비교되고 랩은 메시지 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밀턴은 거의 모든 음악을 랩 위주로 풀어내면서 재미와 흥행의 모든 면을 만족시켰다. 어떤 기준을 깬 것이다. '해밀턴'

을 참고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했다. 우리 뮤지컬을 보고난 관객들의 반응은 '신선하다'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는 내용도 많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기존 화법의 틀을 깨 본 시도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에 만족한다.

Q 작품의 부제가 '끝나지 않은 소원'이다. 우리에게 어떤 끝나지 않은 소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끝나버린 꿈 혹은 소원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소원은 끝나지 않아야 한다. 김구 선생이 꿈꾸는 문화국가의 모습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빌보드·오스카를 석권한다고 소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회가 되도록 또 다른 목표와 소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결핍된 상태라서 가진 소원이 아니라 늘 공기처럼 존재하는 소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평등한 상태를 지속해서 지향할 수 있었으면 한다.

Q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

A. 의도를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관객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다. 하나의 역할을 전 캐스트가 맡는 형식과 전체적인 구성 등에서 은유된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했다. 한 영웅에 대한 감명보다 다수의 한 발자국이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

김구 선생의 유묵,
그 깊은 울림을 전하다!

「백범 김구 스다」

백범의 유묵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스다』 기획전이 열렸다. 이번 기획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조망하고 김구 선생의 삶과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 치열했던 27년간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한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다. 김구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경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내무총장을 거쳐 국무령을 지내며 “그림자를 짝하고, 홀로 허벅지를 끌어안은 채” 외로운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김구 선생은 조국을 떠나 27년간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이 기간 중 1931년에는 한인애국단 조직하고 이듬해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성공시켰다. 뿐만 아니라 1940년에는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등 유의미한 업적을 남겼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은 민족의 ‘완전한 자주통일’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 여기며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통일운동가’로 활동했다. 해방을 맞아 27년 만에 환국한 김구 선생은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민족의 완전한 통일국가를 염원하며 붓을 들었다. 중후한 글 맵시와 강직한 기세가 돋보이는 대자 현판 글씨에는 단순히 필획의 형식미를 뛰어넘어 민족주의자가 지닌 신념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슴에 맞는 흥탄으로 인해 수전증을 얻은 탓에 손 떨림이 붓끝에 전해지기도 했으나 정신의 웅장한 기세는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말년에 쓴 「독립만세」와 「광복조국」 등은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독립과 광복을 응변한다. 김구 선생에게 민족의 완전한 통일국가 수립은 1919년의 3·1운동에 이은 제2의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되며 선생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통일운동가로서 삶의 궤적을 이어간 김구 선생. 그가 써 내려간 강건한 기세의 붓글씨 한 자, 한 획마다 민족지도자로서의 울골은 바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독립만세

김구 | 종이에 먹 | 1947 | 김위 소장



“내 직업은 독립운동이요!”라고 말했던 김구 선생의 강한 독립의지가 담겨 있다.

광복조국

김구 | 종이에 먹 | 1948. 3. 1. | 문화유산국민신탁



선생이 3·1운동 29주년을 기념해 쓴 휘호로, 독립운동가 송재준에게 줬다.

한운야학

김구 | 종이에 먹 | 1948. 8. 15. | 개인 소장



1948년 8월 15일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일로, 통일정부 수립을 꿈꿨던 백범의 쓸쓸한 심경이 드러난다.

『백범 김구 스다』
기획전

- 기간 : 2020. 12. 10. ~ 2021. 05. 09.
- 장소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사료 수 : 김구 유묵 및 독립운동 자료 총 68점

백범 김구 선생이 심산 김창숙에게 써준 「일송오강」



김구 | 종이에 먹 | 1947 | 심산김창숙기념관

이번 기획전에서 최초 공개된 「일송오강」은 김구 선생 특유의 펴림체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 뜻을 세우고 쓴 글씨다. 엄정한 마음가짐으로 쓴 이 글은 김구 선생이 평생 동지인 심산 김창숙에게 써준 것으로, 내용은 김창숙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인 대계 이승희의 ‘날마다 외는 다섯 가지 강령(日誦五綱)’을 인용했다.

대한제국기 유학자인 이승희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유생들과 상경하여 을사오적의 목을 벨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투옥됐다. 1908년에 만주로 건너가 학교를 세우고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이승희에게서 수학한 김창숙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유림을 대표해 독립선언서를 청원했던 인물로 광복 이후에는 김구 선생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의 선두에 섰다. 날마다 잊지 않고 새겼던 이승희의 「오강」은 백범과 심산, 나아가 애국선열 모두의 강령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친필 유묵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유묵

지청천 | 비단에 먹 | 1947 | 개인 소장



독립운동가 박열의 시간

박열 | 종이에 펜 | 1922 | 개인 소장



최초 동시 공개된 1919년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자주독립 전개 방법을 제시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다. 이 선언서는 민족대표 중 한 명인 오세창이 소장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출처가 가장 명확하게 알려진 원본이다. 「3·1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한 글로 독립선언의 배경과 정당성, 일제로 인한 민족적 피해와 독립에 대한 신념 등이 담겨 있다.



종이에 인쇄 | 1919 |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종이에 인쇄 | 1919 | 개인 소장



종이에 인쇄 | 1919 | 개인 소장



대한독립선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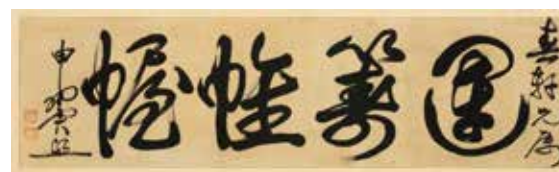
「대한독립선언서」는 「3·1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준 선언서이자 우리나라 최초(1919. 2. 1.)의 독립선언서로, 자주독립을 촉구하며 조소앙이 초고를 쓰고 독립운동가 39명이 만주에서 선포했다.

대한국민의회 선언서

1919년 3월 17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가 한민족의 자주독립과 영구적인 대일항전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독립운동의 방향을 ‘혈전독립’ 등 무장투쟁을 강조했다.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대한국민의회는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됐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소앙의 자작 시고

임정 외무부 차장을 역임한
신익희의 유묵



신익희 | 종이에 먹 | 개인 소장



조소앙 | 종이에 먹 | 1948 | 개인 소장

- 64 **백년지대계**
언택트 시대, PBL 콘텐츠로 온라인 수업의 대안을 만들다
정준환 재미교육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72 **백범의 서가**
명성황후 시해범은 과연 누구인가?
표정훈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 78 **거룩한 여정**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 조사보고서
- 83 **이한장의 사진**
- 84 **다시 읽는 『백범일지』**
- 86 **협화·기념관·재단 주요소식**

공명(共鳴), 세상에 울림을 전하는 ‘백범의 가르침’

언택트 시대, PBL 콘텐츠로 온라인 수업의 대안을 만들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오늘, 학교 교육뿐 아니라 박물관·미술관·기념관까지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과거 가까운 미래상 정도로만 여겼던 언택트(Untact) 교육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실현되면서 기존 수업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 우리는 어떤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까?

글 정준환(재미교육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로 이뤄지는 PBL 프로그램

필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모여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형태, 이하 PBL)’을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는 초·중등교사뿐만 아니라 박물관 학예사·교육공학전문가 등이 참여 중이다. 기본적으로 학년과 교과와 경계를 허물고 형식교육의 장(학교)과 비형식교육의 장(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등)을 넘나들기 위한 실질적인 콘텐츠 생산과 실천에 중점을 둔다. 꾸준한 활동 덕분에 주옥같은 ‘학교 밖 PBL 프로그램’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애국투사로 분해 탈옥을 위해 서대문형무소 곳곳을 누비는 <붉은 벽돌의 눈물: 김재만 탈옥기>가 대표적이다.

<붉은 벽돌의 눈물>은 서대문경찰서를 탈출한 독립운동가 이재유를 모티브로 해서 개발한 PBL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독립운동가 김재만이라는 가상 인물이 돼 탈옥을 목적으로 각종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서대문형무소의 핵심적인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누비며 일제의 갖은 고문과 모욕을 견디며 항거했던 살아있는 현장,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다. PBL의 특성상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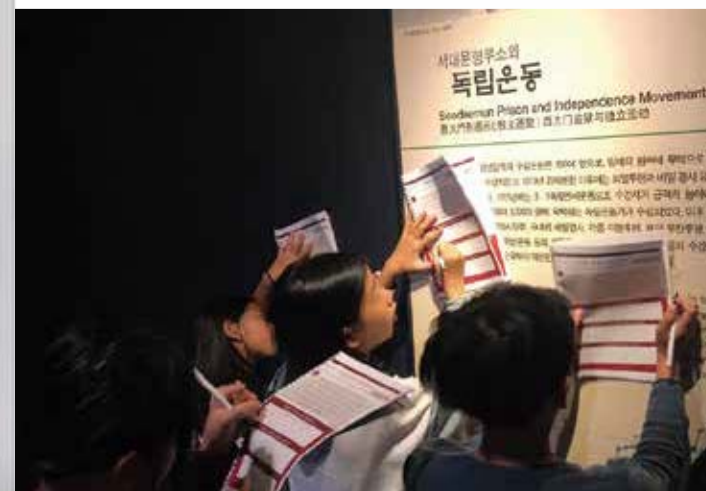
든 과정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 서대문형무소의 탈옥루트에 따라 이동하며 공간마다 부여된 ‘퀘스트(Quest)’를 해결해야 하므로 교사가 도울 일은 거의 없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퀘스트를 제시하는 방식일 경우엔 소수의 온라인 튜터만으로도 PBL 프로그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붉은 벽돌의 눈물> PBL 프로그램 사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적인 수업사례로 주목받아 KBS 다큐멘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2부(2017. 9. 22. 방영)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붉은 벽돌의 눈물> 방송화면 캡처

학습효율성 높일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중요

이처럼 박물관·미술관·기념관, 그 어디든 학교 밖 세상의 모든 공간은 얼마든지 ‘신명나는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진 직접 느끼고 체험해야 할 생생한 교육현장이 지식전달을 위한 공간에 머물 때가 많아 안타깝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관련 지식을 설명하는 강사들의 열정에 비해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은 기대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효율성이 높은 학습방법을 분석한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NTL, National Training Laboratory)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방법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24시간 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측정한 결과, 여러 교육 방법 가운데 ‘강의 듣기’가 가장 낮은 5%의 기억률로 나타났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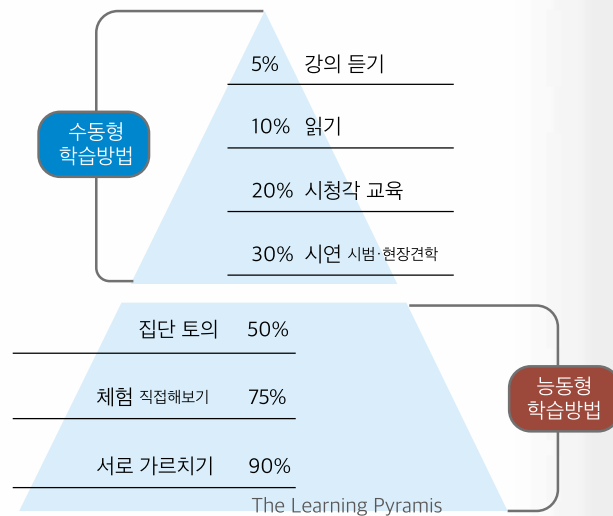
PBL을 활용한 학생들의 활동 장면

이는 전시물을 보고 관련 지식을 전달받는 위주의 견학 수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이 온라인을 통해 전시물을 보여주고 전시해설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 온라인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전시물의 설명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수업방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업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각종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에서 해오던 기존의 교육프로그램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즉 박물관을 무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펼치도록 만들 콘텐츠다. <붉은 벽돌의 눈물> 속 가상의 독립운동가 김재만이 돼 서대문형무소라는 역사적 공간 자체를 배우고 체험했던 것처럼, 백범김구기념관 역시 PBL 콘텐츠를 통해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음 소개할 PBL 프로그램 <정동1897>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구성의 콘텐츠로 스마트러닝 환경 조성

<정동1897>은 참가자들이 스웨덴 문화인류학자 ‘요나스 달렌’이 돼 ‘정동구락부’의 사람들이 제시한 미션을 차례로 해결하는 PBL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각 인물의 요구(퀘스트)를 파악하고, 이들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임무를 차례로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인물카드 앞장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소개와 성향이 있고 뒤에는 인물이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판은 고종에게 커피를 대접한 사람으로 유명한 손탁 여사의 호텔이 출발점이 된다. 그곳에서 만난 인물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이어서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사람들을 만나 둘째 판의 임무들을 수행한다. 마지막 세 번째 판은 덕수궁을 주요 무대로 삼아 궁궐 사람들과 신하의 부탁을 들어주는 활동으로 채워진다. 모든 인물의 부탁(퀘스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석조전에 들어가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을 알현하고 최종 미



션을 부여받는다.

참여한 학생들은 정동구락부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손탁호텔 터, 이화학당의 주변에서 구 러시아 공사관, 정동교회에서 배재학당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역사적 현장을 옮겨 다니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인물카드에 적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미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각종 지도 어플을 활용하면서 학습활동에 몰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환경이 <정동1897>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인 셈이다. 당시 학생들은 추운 겨울 날씨를 잊을 정도로 다섯 시간가량을 쉬 없이 뛰어다녔다. 이들의 반응은 활동 후 남긴 성찰저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정동1897>의 초대장과 커버스토리를 비롯한 영상 및 인물카드



“정동구락부 PBL을 하는 동안 정말 추웠지만 추운 만큼이나 재미있었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던 내 머릿속에도 지식이 차곡차곡 쌓인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론상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고 느끼며 즐긴 만큼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이번 정동구락부는 여러모로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송○나 성찰저널 중

“이번 정동구락부 체험은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춥고 쌀쌀한 날씨였지만 그것조차 잊을 만큼 열심히 뛰어다녔고,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풀어나가면서 얻은 값진 결과였기 때문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지루하게 역사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외우는 게 전부였던지라 역사가 아주 재미있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정동구락부를 통해 대한제국의 역사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책과 교과서에서만 보던 배재학당과 이화학당도 이번엔 새롭게 보였고, 또 역사 속 인물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온 듯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정말 신나는 수업이었다.”

-김○영 성찰저널 중

학습 콘텐츠의 게이미피케이션이 관건

<정동1897>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던 작년 여름, 학교와 박물관의 교육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특히 여기에는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디자인적 사고와 기법을 입히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 전략적으로 활용됐다. 참여자가 각 퀘스트(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경험치(XP)·보너스(BP)·능력치(CP)를 부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동1897>의 참가자들은 정동 일대와 덕수궁을 누비지만 모든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다. 이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이 신속하게 제공되며, 게임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동1897> 활동장면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라 하면, 줌(Zoom)과 같은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해 화상카메라 앞에 앉아 교수가 제시한 대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전시물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도슨트를 쌍방향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집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온라인 박물관 수업이라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동일한 목적(지식전수)으로 수업이 이뤄진다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박물관에서 직접 듣는 것이나 온라인 박물관에서 영상을 통해 접하는 것이나 공간과 매체의 변화 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 수업방식의 변화를 끌어낼 콘텐츠가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상현실 체험관을 구축하고 하나하나 공을 들여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탑재한다고 해서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화려한 볼거리가 잠깐은 시선을 끌지 모르지만 지속되기 어렵고 이내 외면을 당하기에 십상이다. 이는 3D가상현실 박물관 구축사업을 벌여 온 지난날의 성적을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정동1897〉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피드백시스템

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수업방식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콘텐츠의 유무다.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의 방대한 전시물 정보를 제공해주는 최대 규모의 온라인 박물관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Culture)’도 예외는 아니다.



〈Creative Art Gallery〉커버스토리



매력적인 콘텐츠가 한국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소장품을 감상하는 이유와 목적을 만든다. 서대문형무소 탈옥을 목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붉은 벽돌의 눈물>, 스웨덴 인류학자 요나스 달렌이 정동구락부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부탁을 들어주는 <정동 1897>처럼 말이다. 다음에 소개할 <크리에이티브 아트 갤러리(Creative Art Gallery)> PBL 프로그램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페르난도 보테로의 패러디 작품에서 시작한 ‘커버스토리’ 참여한 학생들에게 우리 반만의 이색 온라인 미술

관을 열기 위한 특별한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이들의 패러디 작품 활동에는 ‘구글 아트 앤 컬처’의 활용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된다. 학생들은 자신과 닮은 초상화 작품을 아트셀피(Art Selfie)를 활용해 찾게 되는데, 전 세계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가운데 자신과 가장 닮은 순으로 화면에 노출시키는 기능이다. 아트셀피 기능을 활용해 셀프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닮은꼴 초상화 작품을 검색해준다. 학생들은 닮은꼴 초상화 작품 중 하나를 고르고, 집에 있는 소품을 활용해 직접 재현해 패러디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아트셀피 기능을 활용한 활동방법 소개카드



Creative Art Gallery에 참여한 5학년 학생들의 패러디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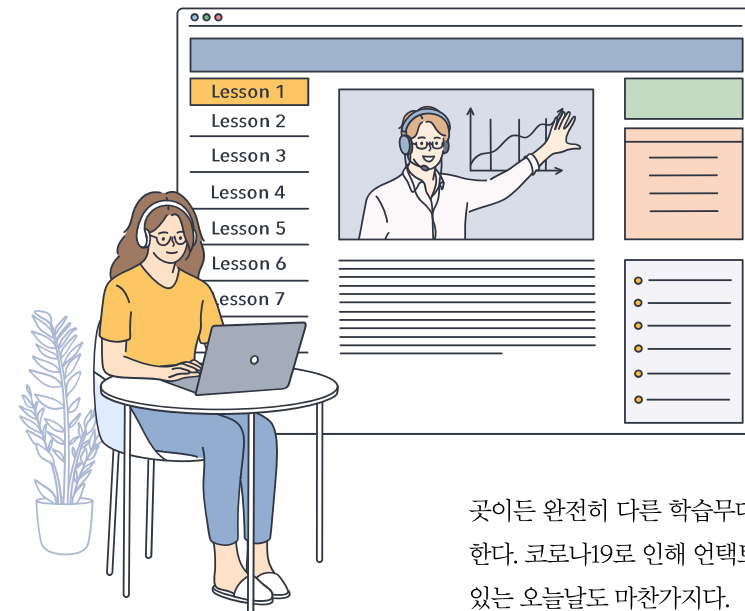
각종 패러디 작품으로 채워진 이색 온라인 미술관은 참여한 학생들로 하여금 활동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미술관에 전시할 패러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표정을 지어가며 닳은 꼴 초상화 찾는 데 몰두했다. 전 세계에 소장된 많은 작품들이 후보군에 올랐고, 세심하게 살펴보길 반복하며 패러디할 작품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어서 작품 속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재현 활동에 돌입했다. 시간이 지나자 감탄을 자아내는 제법 그럴싸한 패러디 작품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초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을 사진으로 멋지게 재현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린 초상화에 유명 미술가의 명화 특징을 더한 패러디 작품을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감은 매우 컸다. 다른 친구들이 올린 다채로운 패러디 작품을 감상하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온라인 환경이 무색할 정도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매력적인 PBL 컨텐츠가 역사교육에 도입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력적인 PBL 컨텐츠가 있다면, 백범김구기념관의 3D VR 온라인 전시관도 특별한 온라인 학습무대가 될 수 있다. 유명 드라마나 영화(이름테면 미스터션샤인, 밀정 등)의 이야기에 착안해 PBL 컨텐츠를 만든다면,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백범김구기념관 혹은 온라인 전시관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매력적인 이야기에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도입한다면, 전시관 하나하나가 퀘스트 수행 공간이 된다. 여기에 긴박감을 더한 흥미진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방탈출 게임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의 PBL 컨텐츠 주제와 담긴 이야기에 따라 동일한 전시공간이라 할지라도 활동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시관 곳곳을 누비는 이유가 백범김구기념관 굿즈를 디자인하기 위함이라면 어떨까. 차별화된 굿즈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김구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사료수집 임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더욱이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반영한다면 테마별로 퀘스트(문제)에 부합하는 사료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수집



형 RPG 게임규칙을 전략적으로 가져와 반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전시공간을 누비며 필요한 아이템(사료·지식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습이 이뤄진다, 제시된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관문인 '백범김구기념관 굿즈 만들기'에 도전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왕이면 피날레 활동으로 백범김구기념관 굿즈 온라인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면 더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혁신은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¹⁾의 말대로 창조적 파괴와 재결합의 과정을 담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기존의 교육방식을 고수하면서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을 더한다고 혁신이 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다른 접근·창조적 파괴가 선행돼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가능해진다. EBS 지식채널e <인공지능을 이기는 교육>(2018. 2. 2. 방영)으로 소개된 PBL,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긴 PBL 컨텐츠가 박물관이든 거리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어느

곳이든 완전히 다른 학습무대로 만든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PBL 컨텐츠가 기존교육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넘나들며 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다. 지금부터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의 전시물을 학습자원으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최적의 학습환경을 구현해보자. 능동적으로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매력적인 PBL 컨텐츠를 만들어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자. 박물관·미술관·기념관 상호 간에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새로운 대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자. PBL의 묘미를 알게 되면 배움의 동기는 저절로 생기는 법! 무모해보이는 도전이 뜻하지 않는 기쁨과 희열로 다가올지 모를 일이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온라인 박물관·기념관·거리 곳곳을 무대로 펼쳐진 PBL의 감동과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전해지면 좋겠다.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교육세상이 보이는 법! 오늘 마음 가는 주제 하나 골라 무작정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1) 슈페터는 그의 분야에서 '혁신'을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자본주의 경제적 발전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며 각 요소 간의 새로운 결합으로 인해 내부로부터 변혁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명성황후 시해범은 과연 누구인가?

1896년 3월 9일 치하포에서 김구 선생이 일본인 쓰치다를 처단한 치하포 의거는 선생의 청년기에서 하나의 큰 획이었다. 이 사건은 을미사변(乙未事變), 즉 1895년 10월 8일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을미사변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그날의 진실은 치하포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글 표정훈(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명성황후 시해범은 일본군 소위 미야모토 다케타로

한일관계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종각 교수는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메디치미디어)에서 지금까지의 통설에 도전한다. 책의 부제목이 그 도전을 요약한다. ‘120년 만에 밝혀지는 일본 군부 개입의 진상.’ 통설은 주한 공사 미우라 고로가 총책임자가 돼 대원군의 쿠데타로 위장하면서, 낭인들을 동원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것이다. 을미사변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기모노를 입고 칼을 휘두르는 일본 낭인부터 떠올린다.

이종각 교수는 통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패권을 다투던 일본 정부가, 왕비 살해 임무를 낭인들에게 맡겼을 리 없다는 것. 을미사변은 일본 군부의 치밀한 군사 작전이었고 범인도 군인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우치다 사다쓰치 주한 영사(미우라 공사가 왕후 살해 작전에서 철저히 배제했던 인물)가 보고한 「우치다 보고서」, 그가 본국 외무차관에게 보낸 개인 서신, 그 밖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책 부록에 「우치다 보고서」 전문 번역, 「한국왕비살해사건 군법회의 판결서」 전문 번역, 그리고 「우치다 사신(私信) 전문 번역」 등이 실려 있다.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이종각 교수는 경성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郎) 소위를 왕후 시해범으로 지목한다.

“다행히 국왕 및 왕세자 부부는 무사했지만 앞서 살해당한 부녀 중 한 명은 왕비라고 하는 바, 이를 살해한 자는 우리 수비대의 어느 육군 소위로서 그 사체는 오기와라가 한국인에게 명해 이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 즉시 불을 질러 버리는 등 매우 난폭한 소행을 저질렀습니다.”



“
을미사변은
일본 군부의 치밀한
군사 작전이었고
범인도 군인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



을미사변 당일, 우치다 영사가 하라 다카시 외무차관에게 보낸 비밀 서한 내용의 일부다. 당시 경성수비대에 소속 소위 4명 가운데 다케나가 소위는 경복궁 경비를 썼고 미야모토를 제외한 두 명은 당일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성수비대 군 지휘관들이 히로시마 헌병대에 수감돼 조사를 받을 때, 군 장교와 낭인들은 미야모토 소위가 마키 특무조장과 함께 왕비 살해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우치다 영사는 히로시마의 검사장에게 보낸 공식 전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왕비는 먼저 우리 육군사관의 칼에 맞고 그다음에 나카무라(낭인)도 손을 대었는데, 그때 나카무라가 잘못해 사관의 칼날 끝에 오른손이 닿아 부상을 입었음.” 미야모토 소위와 마키 특무조장은 사건 한 달여가 지나 뒤늦게 본국으로 소환 명령을 받는다. 하급 장교, 부사관에 불과한 둘의 귀국 동정이 군 수뇌부에게 세세하게 보고된다. 3일 만에 서둘러 참고인 조사를 끝낸다. 군 수뇌부가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

을미사변은 일본 군부·정부가 계획·실행한 군사작전

그렇다면 왜 하필 미야모토 소위를 투입했을까? 이종각 교수는 이렇게 추정한다. “첫 번째로 하사관이나 병졸에게 그 같은 중책을 맡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대 병력을 지휘해야 하는 중대장(대위)을 제외한 중위나 소위 등 초급 장교 중에서, 두 번째로 일국의 왕비를 살해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는 만큼 상당한 군대 경험과 인명을 살상한 경험, 즉 실전 경험이 있는 자, 세 번째로 임무를 수행한 후 발설하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골라야 했을 것이다.”

역시 살해 현장에 있던 마키 특무조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야모토 소위 혼자 현장에 투입했

을 때 부상당하거나 살해당해 임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장 상황이므로, 단수보다는 복수로 보내 상대방의 방어 또는 위해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신변 경호의 원칙을 따랐을 것이다. 두 번째로 미야모토 소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경우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하라는 역할이 부여됐을지 모른다. 그가 하사관 가운데서 가장 경험이 많은 특무조장인 만큼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어 일본을 물리친다’라는 ‘인아거일(引俄拒日)’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본은 명성황후 제거를 시급한 목표로 정했다. 을미사변 두어 달 전 7월 19일 육군 무장 출신 미우라가 일본 공사로 파견되고, 대본영 지시로 공사관 부속무관 구스노세 유키히코 중좌 밑으로 대위 3명과 하사관 5명을 단기간에 집중 배치한다. 사건 당일 경복궁 난입에 동원된 장교는 10여 명, 동원된 병력은 3개 대대나 됐다.

을미사변은 사실상 일본 군부 및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한 군사작전이었다. 낭인들이 동원되기도 했지만 명성황후를 실제로 살해한 것은 현장에 투입된 군인이며, 모든 과정을 지휘한 것은 주한 일본 공사였다. 하지만 을미사변 3개월여 만에 사건 총책임자 미우라 일본 공사를 비롯해, 일본인 56명(군인 8명, 민간인 48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성황후 시해범이 민간인 신분 낭인인 것과 군인인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주한 일본 공사의 지휘를 받아 일본군 현역 장교가 시해를 했다면 일본 정부는 법적·외교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우라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뒤 일왕의 시종이 그의 숙소로 찾아와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그 사건을 처음 들으셨을 때,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이지 일왕은 이웃 나라 왕비를 무참하게 살해한 일을 용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시종을 보내 미우라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을미사변이 일왕, 일본 정부와 군부에서 낭인에 이르는, 사실상 일본 전체의 범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진다.

경복궁에서 고종을 호위한 러시아인 건축가

김영수 박사의 『명성황후 최후의 날』(말글빛냄)의 부제목은 ‘서양인 사바찐이 목격한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억’이다. 을미사변을 시간대별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또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러시아의 극동 정책과 조선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답게, 러시아 측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서양인 사바찐’은 스위스계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 건축가,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사바찐(1860~1921)이다. 그는 러시아 항해학교에서 조타수 교육을 받은 뒤 중국 상해에 머물게 되면서 건축 분야 전문가로 성장했다. 1883년 9월 인천에 온 그는 ‘영조교사(營造敎士)’라는 직함으로 조선 궁중의 건축 관계 일을 시작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인천의 조선 해관(海關)에서 관리 자리를 얻었다. 사바찐은 독립문·러시아공사관·덕수궁 정관헌과 중명전·손탁호텔 등 근대 건축물 설계나 공사에 참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888년 5월부터는 경복궁의 첫 서양식 건물인 관문각 공사 지휘·감독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청일전쟁 이후엔 고종을 보호하는 외국인 경호원 역할까지 맡았다. 1894년 9월부터는 경복궁 인근 사저에서 궁궐로 일주일에 네 번씩, 저녁에 출근해 아침에 퇴근하는 생활을 했다. 고종



“
 김영수 박사는 그날
 곤녕합 마당에 사바전이
 명성황후 시해를 직접
 목격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

은 1894년 7월 23일, 청일전쟁 직전 경복궁을 무단 침입해 점령한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사건 이후 늘 불안에 시달렸다.

고종은 1894년 9월부터 미국 육군 출신 윌리엄 매킨타이어 다이(1831~1899)를 경복궁 시위대 대장으로, 사바전을 부대장으로 기용했다. 다이는 군 출신이지만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바전을 부대장으로 둘 정도로 고종의 처지는 절박했다. 고종은 미국인과 러시아인이 시위대를 지휘하면 일본군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명성황후를 제거하려는 일본의 계획과 실행 앞에서 그 기대는 너무도 순진하고 무기력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10월 8일 새벽 사바전은 궁궐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새벽 4시쯤 시위대 1대대장 이학균의 다급한 소리에 사바전은 잠을 깼다. 다이와 사바전은 급히 경복궁의 주요 출입로들을 점검했으나 일본군은 이미 치밀하게 경복궁을 에워싸고 있었다. 반면 시위대의 대비 상황은 유명무실했다. 장교와 병사들은 흩어져 버린 상태였다. 새벽 5시, 총성 한 발을 신호로 일본군이 침입하기 시작했다.

사바전은 그날 시해 현장을 목격했을까?

“현장에서 만난 그 일본 장교는 미야모토 다케타로 소위였다. … 미야모토 소위는 1895년 10월 7일 오전 일본 수비대의 임시 비밀회의 당시 우범선을 데려온 인물이었다. 그런데 미야모토는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사바전은 옆에 있는 일본 군인에게도 접근했지만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느꼈다. 다급해진 사바전은 지휘자인 오카모토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종각 교수가 명성황후 시해범으로 추정한 그 미야모토 소위다. 김영수 박사는 그날 곤녕합 마당에 사바전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서 있었고, 이에 따라 명성황후 시해를 직접 목격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사바전이 오카모토에게 보호를 요청하자 오카모토는 사바전이 시해 현장을 목격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추정이다.

“사바전은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었다. 사바전은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자신의 목격을 모두 증언할 수 없었다. 그는 비겁한 자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생사를 넘나든 을미사변의 하루를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 사바전은 기억의 편린을 복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김영수 박사는 명성황후를 직접 시해한 범인을 주한 일본 공사관 소속 순사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로 추정한다. 고종과 왕세자(나중의 순종)의 증언에서 와타나베는 마지막으로 왕비를 복도에서 뒤쫓은 인물이었다. 와타나베는 1882년 주한 일본 공사관 순사로 부임해 1898년 경부로 승진했다. 한일 병합 이후 1910년 조선총독부 통역관 겸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경사에 임명됐다.

한국어에 능통했던 그는 대원군을 방문해 의중을 파악할 정도로 정보 수집 활동에 앞장섰다. 와타나베는 그러면서도 자기 돈으로 활동비를 충당하는 등 사실상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그는 첩자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을미사변에 관련된 자신의 행적을 철저하게 숨기고자 했다. 일본 경찰이 명성황후를 직접 시해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커지게 될 외교적 파장과 일본 정부 책임론을 감안한 행태가 아니었을까.

치하포 의거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그러니 저놈이 보통 장시치나 기술자 같으면, 굳이 우리 조선 사람으로 위장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저자가 우리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가 아닐까? 경성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도망하여 숨으려는 것은 아닌가? 만일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미우라의 공범일 것 같다. 여하튼 칼을 차고 숨어다니는 왜인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버섯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 보리라.’ (『백범일지』)

1896년 3월 9일 치하포 의거로 김구 선생은 5월에 해주옥에 투옥됐고, 7월에 인천 감옥으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1898년 3월에 탈옥했다. 김구 선생의 청년기는 치하포 의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인천 감옥에서 김구 선생은 서양의 역사, 문화, 제도에 관한 신서적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식견을 키워나갔다. 탈옥 이후 방랑하기도 하면서 삶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종각 교수와 김영수 박사의 책은 명성황후 시해범으로 각각 일본군 경성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 소위와 주한 일본 공사관 소속 순사 와타나베 다카지로를 지목한다. 다른 인물을 지목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인물 모두 일본 정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군인과 경찰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명성황후 시해범은 민간 남인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 정부였다. 이 점이 치하포 의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김구 선생은 치하포에서 사실상 일본 정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 개인적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다. 

연재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 조사보고서 (白凡金九先生暗殺真相 調查報告書)

● 안두희와 관련자들의 증언편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 조사보고서>는 정부 스스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물로, 1995년 12월 18일 발표됐다. 지면 관계상 보고서를 연재 형태로 게재한다.

머리말

1949년 6월 26일의 '백범 김구(白凡 金九) 선생 암살 사건'은 아직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는 현대사의 대표적인 미제(未濟) 사건이다. 백범이 서거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암살의 배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왜곡과 굴절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암살의 주범인 안두희는 범행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년도 채 못 돼 석방돼 육군에 복귀해 대위로 승진됐다. 국회에서 그 사실이 문제 되자 제대 후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군납사업으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살아왔다. 반면,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며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애국자 백범 김구 선생이 이승만 정권 시절 용공(容共) 또는 공산주의자로 몰린 사실은 우리 역사의 왜곡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4·19 학생혁명으로 무너지자 비로소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차원

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안두희는 체포돼 구금됐으나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다가 석방됐다. 진상조사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한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그 후 제34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채, 민간에서 개인 혹은 단체들의 조사활동만 간간이 이어져 왔을 뿐이다.

1992년 11월 5일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 시해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백범 김구 선생 시해 진상조사위원장 이강훈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가 박명환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우리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장은 위 청원을 1992년 11월 7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1993년 2월 17일 위 청원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1993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 강신옥 의원, 위원 박헌기·정상천·강수림·이원형 각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진술인 이강훈·신용하·김신·김용희·서영훈·곽태영 등의 진술을 들었다. 1994년 1월 4일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안두희를 불러서 조사하려 했으나 국회에 출석한 안두희는 건강악화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평소 자기에 관해 녹음했다는 녹음테이프 120개를 조사자료로 제출받아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을 녹취서로 만들었다.

1. 안두희와 관련자들의 증언

1) 1950년대 『시역의 고민(弒逆의 苦悶)』과 『사찰요람(查察要覽)』

백범 김구 선생 암살에 관해서 그간 관련자와 목격자의 다양한 증언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암살자 안두희의 증언이다. 안두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언은 그야말로 현대사의 곡절(曲折)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949년 사건 직후 안두희는 체포돼 특무대의 심문을 받았으며, 또한 육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안두희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언론인 오소백의 공판참관기가 전해져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오소백의 공판참관기에 나타난 안두희의 주장은 안두희 스스로 녹음한「녹취서」(이하 「마지막 증언」으로 표시함)에서 전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시대'인 1950년대 내내 뇌관(雷管)과 같은 폭발성을 지니고 있었다. 안두희는 1955년 갑자기 옥중일기를 출간하는데, 그것이 『시역의 고민(弒逆의 苦悶)』(학예사, 1955)이다. 『시역의 고민』은 1949년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을 제외한 33일간 안두희의 옥중일기 형식으로

돼 있다. 출간 당시 안두희는 그의 옥중일기가 한국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보존된 '기적의 유물'이라고 했다.

안두희는 『시역의 고민』에서 꿈과 낙서, 성당의 종소리 등 유치한 수준의 문학적 표현으로 옥중경험은 물론 일제 때의 중국 생활, 귀국 과정, 해방 후 북한 생활, 월남과 서북청년회 활동, 한독당 가입과 김구 면담, 김구에 대한 회의, 암살의 불가피성 등 관련되는 내용 전반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작(偽作) 여부이다. 당시 안두희는 1년 전부터 구상해 1954년 6월부터 구체적으로 출판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출판 당시부터 이미 '최근에 창작한 위조물'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안두희는 모략중상(謀略中傷)이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이번의 「마지막 증언」에 의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조작된 위서(偽書)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즉, 안두희는 특무대의 김창룡·김일한 등의 권유로 집필을 시작했으며, 문장력이 있는 김이엽이 원고를 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최종 출간된 책은 안두희의 원고나 김이엽이 다듬어준 것과는 중요한 부분에서 판이했다. 요컨대 이 책은 특무대에 의해 중요한 부분이 조작된 위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역의 고민』은 역설적으로 위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이야말로 안두희 선(線) 이상의 암살의 진정한 주체, 즉 고위층의 정세관과 백범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때문이다.

이 책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된 출간시기도 검토할 만하다. 당시는 제3대 정부통령 선거(1956. 5. 15.)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과 신익희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대결이 심화되던 매우 정치적인 시기였다. 안두희가 책출간을 결심하던 1954년 10월에는 '신익희·조소앙의 뉴델리회담설'이 유포됐고, 그해 11월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을 강행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을 잘 알고 있노라고 호언하던 서북청년단의 김성주가 원용덕에 의해 피살됐다.(1954. 4. 17.) 즉 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백범 문제가 미묘한 과

장을 일으키던 시기에 『시역의 고민』(1955. 10. 25.)이 출간됐던 것이다.

안두희가 밝히고 있듯 이 책의 출간 목적은 시중에 유포되던 ‘대통령과 군부의 백범 암살 사주설’에 대한 대응으로, 암살의 배후는 없으며 그가 나라를 위한 단심에 의한 확신범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시역의 고민』은 김창룡 등 특무대가 제3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작한 위서였다고 판단되며, 바로 그러하므로 『시역의 고민』을 분석하면 안두희 선(線) 이상의 정세관과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절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발행한 『사찰요람(查察要覽)』(1955)에는 김구 선생과 한독당이 공산당과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등 경찰의 왜곡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사찰요람』의 내용 중에는 한독당의 활동 가운데 산하조직인 대한보국의 용단(大韓輔國義勇團, 단장 김석황)이 송진우·여운형·장덕수의 암살에 적극 개입했다고 돼 있고, 1948년 4월 김구가 평양에 가서 단선단정을 반대해 ‘적색도당진영(赤色徒黨陣營)’에 투항했다고 적혀 있다. 이때 공산당 첩자인 유진식이 김일성 앞에서 “당신은 우리 삼천만 민족의 영도자 김구 선생을 무시하고 있으니 내 권총에 죽어보라”며 거짓 위협으로 곤궁함으로써 김구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며 해주에서의 2차 협상에 당원 강훈 외 4명을 밀파(密派)해 괴뢰집단의 결성을 지지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맹해 민국정부를 반대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한독당의 이적성을 보여주려 했다. 가장 희극적인 것은 김구 선생이 김학규의 부하인 안두희에게 이승만을 암살하도록 지시했지만, 안두희가 번의(翻意)해 오히려 김구를 살해했다는 대목이다. 또한 김구 선생 피살 후에도 건국실천원양성소 출신 800여 명이 군과 경찰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학규가 재북 중인 조소앙·엄항섭과 연결돼 한독당을 재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므로 은밀히 내사 중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이승만에 대해서는 1945년 10월 그의 환국을 언급하면서 “삼천

만 민족의 태양으로서 남한정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경찰정보 계통에서 김구 선생과 한독당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백히 나타내는 구절이다.

결국 1950년대는 『시역의 고민』과 『사찰요람』에서 보이듯 이승만 정권이 김구 선생 암살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뚜렷했다.

2) 1960~80년대 관련자들의 증언

백범 김구 선생 암살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월 학생혁명 직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5월 24일 고정훈은 군대에 있을 때 장은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은 임병직·신성모의 흥계고 장은산 당시 포병사령관이 문봉제의 부하였던 안두희로 하여금 살해케 했으며, 장은산은 6·25사변 때 밀항하려다가 체포돼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옥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고정훈은 암살 사건에 이승만 박사도 관련돼 있다고 증언했다(《세계일보》1950. 5. 24., 《조선일보》1950. 5. 26., 《한국일보》1950. 5. 27.). 6월 고정훈에 이어 박동엽은 「백범 김구 선생 참변 목격기 1-3」을 통해 세 번의 암살 시도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고정훈이 주로 장은산과 김지웅을 핵심으로 지목하고 그 이상의 배후를 언급했다면, 박동엽은 안두희·홍종만으로 대표되는 암살 하수인들의 역할을 분명히 밝혔다.

고정훈의 폭로와 박동엽의 증언은 4월 학생혁명의 여파 속에서 백범 암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을 청산하는 데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쇄도했다. 1960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암살 당시 장흥 헌병사령관·전봉덕 부사령관·김학규 한독당 조직부장·안두희를 심문한 특무대의 노엽 대위·전포병 부사령관 이기런 대령·안두희의 변호인 김종만·포병사령부 김천근 중위의 부하 신복철·독립운동가 김승학 씨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8월 증언의 결과 암살 사건의 기본 줄거리가 잡혔는데, 김지웅이 고위층 연락, 홍종만이

하수 관리자 책임이었고, 장은산 포병사령관·김창룡 특무대장·채병덕 총참모장·신성모 국방장관 등이 배후로 지목됐다. 나아가 김성주 살해 사건과 장은산의 죽음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제기된 암살 사건의 배후에서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관련 여부였다. 전봉덕은 사건을 보고하러 경무대에 가니 ‘이 박사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증언했고(《서울일일신문》1960. 8. 12), 김학규 역시 ‘이 박사가 배후 음모자’라고 규정했다(《조선일보》1960. 8. 25.). 이 들보다 더 직접적인 언급은 김승학과 최대교의 증언이다. 김승학은 이 박사를 자주 만나던 독립투사 최영호(崔榮鎬)가 찾아와서 ‘이 박사, 신성모, 원용덕 등이 김구 선생 살해를 음모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서울일일신문》1960. 9. 2.). 한편 최대교는 영장발급 등 사건의 처리 과정에 이승만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419 1주년을 이틀 앞둔 1961년 4월 17일 안두희는 김용희에 의해 체포됐다. 김용희는 안두희를 서울지검에 넘겨주었지만 법률상 구속할 수 없어 보호조치로 호텔 연금을 하다 석방됐다. 다만 안두희는 김용희에게 붙들려서 검찰에 넘겨지기 전에 김용희 앞에서 김구 선생 암살 경위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해놓고는 검찰에 넘겨지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 후 65년 12월 22일 의혈청년 광태영이 양구로 안두희를 찾아가 암살의 배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습격했다. 그 때 안두희는 광태영에게 헌병대 순찰과장 김병삼 대위도 배후였음을 밝혔다고 한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백범 암살 사건의 중요한 증언이 있었다. 그는 암살사건의 공범자인 홍종만이였다. 그는 1971년 MBC 라디오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38선’에서 자신에 대한 부분이 왜곡됐으며 항의차 나타났다가 김용희에게 잡혔다. 그 후 그는 암살 사건에 대해 조금씩 말해오다가 1974년 5월 네 번의 수기를 통해 암살 사건을 전면적으로 폭로했다. 이에 의하면 암살사건은 ‘김지웅 각본, 장은산 지시, 일부 정치인과 신성모 국방장



관이 개입’한 것으로 3차례의 계획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검찰에 소환된 홍종만은 안두희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김지웅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음을 폭로했다. 이미 1960년 하수인으로부터 들은 암살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바 있는 박동엽은 홍종만의 폭로가 ‘진상과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안두희는 홍종만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며, 암살 사건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여전히 주장했다. 한 언론사의 주선으로 ‘역사의 두 증인’은 ‘극적 대면’을 했으나, ‘이제는 진실을 말하도록’ 권유하는 홍종만에게 안두희는 ‘나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응수했다.

안두희는 《중앙일보》1981년 12월 18일 자 인터뷰 기사에서 “백범 암살은 소문보다 사연이 복잡하다”며 최초로 배후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가 김창룡의 도움으로 석방됐다는 지엽적인 사실만 밝힐 뿐 암살 사건의 전모와 배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1987년 4월 권중희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두희를 습격하자 ‘암살자 안두희’와 ‘응징자 권중희’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됐으며, ‘광복회’ 등 사회단체들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에 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3) 1990년대 안두희의 증언

1990년대에 들어와 안두희는 여러 번 증언을 하게 됐

다. 그것은 199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민주화운동, 권중희 등의 연이은 억류와 증언 요구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증언들은 상황에 따라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임의성과 진실성에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언론마저 ‘특종’ 다툼으로 안두희의 증언에 따라 다녀 더욱 혼란한 양상을 보였다.

1991년 10월 권중희에게 억류된 안두희는 자신이 미 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는 식으로 미국의 관련성을 암시한 바 있고, 1992년 2월에는 효창공원의 백범 묘소에 눈물을 흘리며 참배했다. 1992년에 들어와 안두희의 증언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무쌍한 것이었다. 그해 안두희의 증언은 4월 중순 3번, 6월 1번, 9월 2번, 총 6번이나 됐다.

1992년 안두희의 증언은 4월 12일 권중희에 의해 마련됐다. 4월 13일 자 《동아일보》에 특종으로 보도된 당시 증언의 개요는 김창룡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을 지시했으며 암살 사건은 두 달간 집중 세뇌받은 계획 범행이고, 범행 전 장택상의 소개로 미 OSS출신 중령을 만나 암살에 대한 암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증언은 언론의 폭발적 관심을 받아 4월 14일자 거의 모든 신문이 안두희의 증언과 백범 암살사건을 보도했다.

그런데 안두희는 권중희로부터 풀려나 4월 14일 저녁 MBC TV에서 박경재 변호사와 인터뷰하면서 12일자 증언을 교묘하게 수정했다. 수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암살 사건의 배후로 김창룡 이외에 장택상 전 수도경찰청장·김태선 시경국장·노덕술 수사과장·최운하 사찰과장 등 4명을 더 지목한 점과 미국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것이었다.

두 증언에서 국내 배후는 연속 선상에서 추가한 것이며, 미국의 관련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계속 신문들의 취재 대상이 된 안두희는 15일 그간의 증언을 절충하는 대답을 제시했다. 그것은 ‘정확하게 소속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군 중령과 반도호텔 등지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이들이 백범 암살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었다.

안두희의 증언이 연일 대서특필되자, 언론은 이후 한 달 동안 증언의 진실성과 허실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 외교 관련자와 주한 미군 관련자는 관련설을 대체로 부인했고, 이에 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고, 미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국내의 배후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와 반론이 제시됐으며 관련자 유가족의 항의도 있었다.

국내 배후에 관한 안두희의 증언에서 문제점은 경찰 쪽을 주 배후로 지적하고, 안두희가 소속된 군부 쪽의 신성모·채병덕·장은산·전봉덕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안두희는 그해 6월 26일 백범 추모일에 김석용의 권유에 따라 암살 사건에 관해서 증언하며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은 장은산이 직접 지시했고, 평소 장은산과 김창룡은 백범 김구 선생을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4월 증언과는 다른데, 배후에 장은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암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홍종만의 1974년 증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권중희는 9월 23·24일 양일간 안두희를 구금하고 증언을 요구했다. 이때 안두희는 백범 암살 6일 전에 신성모·채병덕 씨와 함께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뒷사람 시키는 일을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후 안두희는 테이프 120개에 걸치는 방대한 분량의 증언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김석용의 권유에 의한 「마지막 증언」으로 서울 정릉의 청수장을 비롯해 여러 여관에서 장기 숙박을 하면서 녹음된 것이었다.

그간 안두희의 증언은 가지각색이었고 대체로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조합돼 있다. 그중에서 가장 거짓된 증언이 『시역의 고민』이라면, 「마지막 증언」은 그의 수준에서는 가장 진실하다. 때문에 암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증언」을 중심으로 그간의 다양한 증언과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백범의 마지막 증언



1945년 발간된 중국 잡지 《승리》에 실린 사진이다. 사진 2장 모두 1945년 11월 5일 중국 상해 공항에서 촬영됐다. 1945년 광복 당시 충칭에 머물던 김구 선생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상해 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환영 인파 속에 꽃다발을 목에 건 김구 선생과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구 선생이 대규모 광복군을 사열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잡지에 김구 선생의 사진이 실린 것은 중국인들도 김구 선생을 2차 세계대전 승전의 주요 인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2021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전국 중·고등학교 및 경찰·군부대 32개 단체
1만 2,579명 참가, 도서 3,500여권 증정 예정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백범김구기념관(협회장·관장 정양모)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군부대 및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를 실시, 많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에게 겨레 사랑·나라사랑 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취해 나가고 있다. 본 대회에는 지난 2020년까지 전국의 400개 중·고등학교와 118개 경찰·군부대를 포함하여 518회에 걸쳐 총60만 2,946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남 나주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나주지역의 3개 중학교와 5개 고등학교 등 총8개 학교가 참여한 권역별 대회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1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는 총32개 단체, 1만 2,579명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에게 백범정신과 애국심을 전파하는데 그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4. 13. 중앙경찰학교



5. 21. 충주대원고



5. 31. 충원고



6. 14. 항공과학고



6. 14. 이화여고



6. 18. 조종고



6. 23. 성암국제무역고



◎ 2021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시상 일정

일정	단체명	참가인원	소재지
4월	중앙경찰학교	900명	충북 충주시
5월	동우여자고등학교	584명	경기 수원시
	충주대원고등학교	418명	충북 충주시
	백제고등학교	250명	전남 무안군
	충원고등학교	300명	충북 충주시
6월	항공과학고등학교	450명	경남 진주시
	이화여자고등학교	382명	서울 중구
	조종고등학교	170명	경기 가평군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150명	서울 강북구
7월	부평여자중학교	501명	인천시 부평구
8월	용현여자중학교	738명	인천시 미추홀구
9월	논산대건중학교	210명	충남 논산시
	나주금천중학교	515명	전남 나주시
	매성중학교	387명	
	빛가람중학교	180명	
	금성고등학교	242명	
	나주고등학교	120명	
	매성고등학교	201명	
	영산고등학교	243명	
10월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47명	전북 전주시
	전주신흥고등학교	273명	
	동지여자중학교	60명	
	양주고등학교	208명	
	송의중학교	550명	
11월	고양국제고등학교	400명	경기 고양시
	원광고등학교	300명	전북 익산시
계	26개	8,979명	

※ 시상식 일정이 확정된 단체만 표기함

주요소식을 한눈에! 협회·기념관·재단 주요 소식 훑아보기



2021년도 백범김구기념관 서포터즈 '백범지기'를 아시나요?

온라인 전시 해설, 문화행사 진행 및 다채로운 활동 펼쳐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와 교육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기념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1년 백범김구기념관 서포터즈 '백범지기'를 창단했다. '백범지기'는 백범 김구 선생이 바라던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한 모임으로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백범 김구 선생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백범지기'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됐고 초등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지원하였다. 최종 선발된 '백범지기' 36명은 올해 2월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 참석하여 위촉장 수여와 기관 소개 및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에 대해 전달받았다.

'백범지기'는 해설·봉사·홍보 분야로 나뉘어 온라인 전시해설, 기념일 및 문화행사 자원봉사, 기념관 및 독립운동 관련 소식 홍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추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주말 전시해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기념관에서는 '백범지기'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기념관을 주축으로 한 봉사활동, 홍보 및 역사 교육을 시행하며 온 가족이 참여하는 문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념관을 더욱 친숙한 장소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달라진 기념관 관람 안내

코로나19 방역 주기적 시행... 안심콜 출입 관리, 2m 거리두기 시행

기념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관람객의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 1일 1회 소독과 방역에 힘쓰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박물관·미술관 코로나19 방역'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람 사전 예약제 운영을 통해 전시관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인원을 분산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체온 측정 안심콜 출입관리(방문객 출입대장 수기 병행) 등을 실시해 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시관 내부에서도 관람객 간 2m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에 유의하고 있다.





VR 통해 PC·모바일로 만나는 백범김구기념관 상설전시실

상설전시 관람 및 동영상 시청... 백범 김구 선생 묘역도 관람 가능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언택트의 흐름에 발맞춰 기념관의 전시물을 PC와 모바일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바로 기념관의 상설전시실을 첨단 기술로 구현한 '3D VR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한 것. '3D VR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 전시실을 둘러보며 각 전시물의 태그를 클릭해 전시물 관람 및 확대, 동영상 시청 등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전시관 내 추모공간에서는 효창원 내 김구 선생 묘역을 볼 수 있어 직접 묘역을 찾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기념품점과 연결된 전시공간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동차'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3D VR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해 기념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용
방법

①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 접속 → ② '3D VR 온라인전시관' 배너 클릭(PC 및 모바일 접속 가능)



전시관 중앙홀 태극기 교체

김구 선생 친필이 쓰여 있는 태극기... '광복 의지' 담겨 있어



기념관에서는 기념관 중앙홀에 전시된 김구 선생 좌상 뒤 태극기를 교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전시하게 된 태극기는 김구 선생 친필이 쓰여 있는 태극기(김구 서명문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독립기념관 소장)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광복 의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번 태극기 교체는 기념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중앙홀에서 김구 선생의 애국심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온라인 전시해설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 선보여

- 상설전시실 16편, 효창원 애국선열묘역 3편 등 주제별 구성

기념관에서는 직접 기념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념관 서포터즈 '백범지기'의 전시해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념관 홈페이지 '디지털 영상실'과 유튜브 채널 '백범김구기념관'에 해당 영상을 게재했다. '온라인 전시해설: 백범지기가 들려주는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상설전시실 16편, 효창원 애국선열묘역 3편에 달한다. 영상은 주제별로 구성돼 있어 원하는 주제의 해설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전시해설을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을 이해하게 되는 한편, 기념관 방문 시 실제 전시 관람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소·소·소' 이벤트 개최

『나의 소원』을 읽고 소원을 이루소서... 기념일 의미 되새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나의 소원』을 알리고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나의 소원』을 읽고 소원을 이루소서-소·소·소'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나의 소원』의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이벤트에 참가한 관람객들에게 『나의 소원』 책자와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한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소·소·소' 이벤트는 기념관 관련 기념일과 국경일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어린이날, 백범 김구 선생 서거일 등에 진행해 많은 국민들에게 애국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찾아가는 백범김구기념관

김구 선생의 정신을 담은 시민의 작품들, 서울시 주요 역사에 전시돼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지하철역 충정로역·효창공원앞역·이태원역에서 '찾아가는 백범김구기념관' 전시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백범김구기념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이벤트 '#김구_읽구_쓰구_받구'에 참여한 시민들의 작품으로 구성돼 역사를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김구_읽구_쓰구_받구'는 김구 선생이 바랐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모습, 정치철학 그리고 사상이 담겨 1947년에 작성한 『나의 소원』을 읽고,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작품을 공모받았다. 총 203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이중 우수작 42점을 전시했다. 전시 기간에는 '찾아가는 백범김구기념관' 관람 후, 소감과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앞으로도 백범김구기념관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백범김구기념관'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념관 방명록

국가보훈처 관계자 방문 잇따라

지난 3월 25일 황기철 국가보훈처 장관이, 5월 21일에는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백범김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효창원 애국선열묘역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 삼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참배했으며 전시관을 둘러보며 김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상기했다.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기념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45주년 기념 교육 안내

7월 27일~8월 6일까지 총 8회 진행...
김구 선생의 생애와 철학에 초점

기념관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45주년을 기념하며 온라인 여름방학 교육을 시행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기념관의 어린이 대상 교육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1~4학년 및 가족 대상의 온라인 교육을 시행,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45주년을 기념하는 '백범 김구 완전 정복'을 진행한다.

교육은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8회로,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방학 동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백범김구기념관을 둘러보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빙그레 웃는
이 얼굴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웃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 하나만으로

쉽없이 달려온 빙그레-

단 한 명의 소외된 사람 없이

내일을 꿈꾸며 웃음 지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짓는 일에

빙그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전·일직원이 베타트 문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m.bing.co.kr 빙그레
www.bing.co.kr

빙그레
빙그레



나의 소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